

2003年度  
國政監査

# 政務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金融監督委員會・金融監督院

日 時 2003年10月10日(金)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10시06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在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친인척 금융비리 의혹 관련 증인으로 노건평 씨를 비롯하여 민상철 씨, 안희정 씨, 선봉술 씨, 최도술 씨, 박성태 씨, 굿모닝게이트 관련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SK 분식회계 관련 SK그룹 손길승 회장, SK해운 이승권 대표이사, 카드사 부실 관련 참고인으로 이종석 LG카드 대표,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렇게 총 11명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과 참고인은 노건평 씨, 선봉술 씨, 최도술 씨, 박순석 씨, 손길승 씨, 이승권 씨, 이종석 씨, 김정태 씨 이렇게 8명이고, 민상철 씨와 박성태 씨는 주소지에 부재중이며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증인은 안희정 씨 한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일괄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친인척 금융비리 의혹 관련 증인 중 노건평・민상철・선봉술・최도술・박성태 증인과 굿모닝게이트 관련 박순석 증인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위원회 조사관과 국회의 경위가 부산・김해・마산 등지에서 현장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인들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동행명령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안희정 증인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했습니다. 동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증인 신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마는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위증등의 죄)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희정 증인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희정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熙正 선서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고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나라중금과 창투사로부터 3억 9000만 원 자금의 성격을 놓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되어진 질의와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증언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가 유죄판결을 받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이 증언은 곤란합니다’라는 소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熙正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증인 安熙正

○委員長 李在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 한 분에게 허용된 신문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서 답변은 질의내용에 따라 요점 위주로 간결하면서도 그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단순히 답변이 아니라 모두 증언이기 때문에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답변을 하게 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국정감사 진행은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정책질의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증인 신문 요령은 종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요령에 따라서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첫 번째 증인 신문과 정책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 및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鄭亨根 위원……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러시겠습니까? 하십시오.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오늘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데…… 저희들이 증언을 불렀는데 불참을 해서 특별한 결의로 동행명령서까지 발부했는데 지금 안희정 증인 한 분만 출석하시고 전부 불참입니다.

해마다 증인들의 불참률이 높아지다가 드디어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예 이 제도 자체를 무시할 정도로 이제 안 나가도 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들 간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이 제도가 존재 문제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건평 증인 불참, 민상철 증인 불참, 선봉술, 최도술, 박성태, 박순석, 손길승, 이승권 모두 불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종석, 김정태 참고인도 불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논의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이 불참하면 그냥 국정감사는 끝나고…… 이렇게 불참으로 나가면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정무위 차원에서 이 문제는 먼저 짚고 질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손길승 증인이라든지…… 증인을 상대로 매우 중요한 질의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를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만약에 손길승 증인이 못 나오신다면 다음 직위에 있는 분이라든지 SK를 대표하는 분이 대신해서라도 나와야만 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당혹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지금 鄭亨根 위원께서 많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林鎮出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마무리하시기 전에 연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말씀하세요.

○林鎮出 委員 국정감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연례행사로 해마다 9월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대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해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해당…… 말하자면 증인으로 틀림없이 부를 것이다 하는 해당자들로 예측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사전에 해외 등등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어떤 국제회의가 있다, 또 국제회의를 주도한다, 아니면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또 해외 바이어하고 만나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협약 조인식을 한다는 등등의 이유를 붙이면 우리가 이것을 뭔가 모르게, 불문을 비슷하게 그냥 덮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정부위원회가 16대 들어서면서 불출석자 전원을 전부 고발은 했습니다. 고발해도 아마 그 결과가 벌금 몇백만 원에 그쳤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엄중히 검토해서 국회의 위상을 세우는 데 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지금 鄭亨根 위원, 林鎮出 위원 두 분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상 허용된 모든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많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리 문제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발조치라든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석한 데 대해서 동법 제6조에서 규정된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오늘 국정감사 도중에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응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참석한 것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입법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

임위원회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희망은 증인 신문을 하는 도중이라도 불출석한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鄭亨根 위원이 대리참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 증인이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대리로 누구를 보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때 회사에서 부사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했던 대리참석이란 말씀은 그 취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SK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사전에 ‘어떤 어떤 증인이 참석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여 저희들이 이것을 결의로 받아들이면 증인 신문이 될 수 있고 또 참고인 신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선행되어야지, 어느 기업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질의하는 내용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鄭亨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鄭亨根 委員 우선 SK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그럼 할 수 없이 금융감독위원장님께 대신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식회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손길승 증인이 참석함을 전제로 준비한 것은 생략하고요. SK그룹 손길승 회장께 물으려고 했는데 금융감독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SK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질의할 테니 이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의 일간신문으로 ‘die tageszeitung’이라는 유력한 언론매체가 있는데, 올 4월 26일자로 ‘Dorothee Wenner’라는 기자가 쓴 ‘Der produktive Dritte(생산적 제3자)’라는 기사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인 망명객 송두울은 8년 전부터 북남 지식인 간의 비공식 만남을 조직한다. 송두울 교수는 36년간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현재 뮌스터대학교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죽 나옵니다. “여러 번 공식적으로 그는 평양으로의 초대에 응했고, 평양에서 그는 1991년 남한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김일성대학 및 사회과학원에서 강연했다. 송 교수의 주도로 1995년 이래 매년 북남한 학자들이 비공식 대화를 위해 만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이 모임은 중립적 지역인 북경에서만 개최가 가능했는데 금년 5월에는 처음으로 한반도 평양에서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다. 송두울의 개회사는 북남한 TV에 의해 동일한 시간에 중계되었다. 이것은 이 모임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역설하는 상징적 미디어 사건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 중간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송두울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명을 준-사명을 줬다는 것은 북남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주도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기관이 없이 당시 송두울이 음모를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함에 있어서 필시 다음의 문제가 초래된다. “누가 이 회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두울 씨가 “유럽인에게는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남한에 있는 나의 친구 가운데 다행히도 SK 재벌의 경영진에 동창생이 있다. 이 동창생이 매년 15만 달러의 예산액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SK 재벌에 동창생이 있는데 북남에 초청해서-이건 SK가 아는지 모르지만-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초청, 평양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런 회의의 모든 사업에 매년 15만 달러씩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울 씨가 특정 회사를, ‘SK 재벌’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SK그룹의 임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 모르나 15만 달러라고 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당시의

업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학자들이 북경과 평양에서 비공식 대화를 위해 만나는 회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95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무려 16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정도 되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SK그룹이 지금 문제되는 돈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DJ정부 때도 청와대에 많은 돈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송두울 씨한테 9년 동안 매년 15만 달러씩 지원했다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어떤 계기로 지원을 했는지…… 이것은 단순히 동창생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두울 씨가 SK그룹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게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 4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26일. 송두울 씨가 3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4월 26일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참 당당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감독위원장님 확인 조사해서 보고하실 수 없는지, 제가 당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현재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SK 비자금과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 중인 송두울 사건을 연계하여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글썄요, 제가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亨根 委員 비자금 관련해서 파악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글썄, 저희는 그동안 감리를 한다는 게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 그렇다면 감리를 조사하는 회계보고에 작은 돈도 아닌 15만 불이 9년 동안 나갔는데 회계보고상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파악하고,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하는 업무로 볼 때 그것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鄭亨根 委員 영화회계법인이지 않습니까? 영화회계법인에서 파악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SK의 손길승 회장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그 점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임직원 대출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외 7개 시중은행의 임직원 대출이 무려 8900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도 일반 국민들이 적용받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우대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 금감원은 은행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임직원의 무이자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鄭亨根 委員 그런데 은행들은 무이자로 대여했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주택의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계속해서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주택 명목으로 8개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자금 지원한 금액은 금년 8월 현재 5770억 원인 일반 대출과 임차주택 명목의 자금 지원을 합하면 무려 1조 4670억 원입니다.

이는 법에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를 은행들이 임차주택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금감원장은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은행의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임차주택이라는 명목으로 2003년부터 임직원 1인당 9000만 원 한도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감원장,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반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택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2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 입장에서는 임직원에 대해서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리 대출을 할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지도하도

록 하겠습니다.

○鄭亨根 委員 정치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은행을 감독해야 할 은행감독원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일반 서민들이 단돈 1000만 원 대출받으려면 은행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무이자로 1억 가까운 자금을 임직원에게 지원하고 발생 비용은 결국 서민들이 부담하는 건데, 감독원까지 그렇다면 이것 참……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 감독원에서는 직원들한테 직접 대부해 주는 게 아니고요. 퇴직금 여충당금 재원을 활용하여 저희가 직접 전세 계약을 저희 이름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鄭亨根 委員 그게 같은 이야기인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서민이 받을 수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鄭亨根 委員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2003년 9월 처음으로 국내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해서 한 달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5000억의 보험 판매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은행들이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대리점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은행이 우월권을 내세워 불평등한 계약을 보험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실제 현황은 어떤지?

또한 은행들이 주로 중대형 우량 보험사들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IMF 이후 경영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소 보험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실시한 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량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50% 이상 유지를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鄭亨根 委員 계약 내용 중에도 고객정보 이용 내지는 소유권에 대해서 은행과 보험사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요즘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가면 은행직원들이 하도 보험상품 하나 가입하라고 해서

은행에 업무 보러 가기가 곤란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지점에서는 기업여신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거의 반 강매를 하고 있어 신규 여신 취급할 때 보험끼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보험업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은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였고 판매창구도 타 창구와 엄격히 구별하여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 직원에게 업무 시작부터 캠페인을 벌여서 보험 판매를 독촉하고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 은행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 금지된 보험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종합보험인데 현재 감독규정상 기업의 종합보험은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 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보상하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화재보험만 가입을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보액을 높이 설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금감원장이 알고 계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에서 일부 은행들의 경쟁적인 사업 확장 행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鄭亨根 委員**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국내 선물시장 개장 이후 선물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옵션시장에는 개인의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지금 보면 옵션시장에는 2002년도에는 개인이 65.8, 증권사 등이 26.8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는 2002년에 7800억 원, 2003년 상반기에 27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파생상품의 손익구조는 제로섬게임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바로 증권사의 이익인데 증권사는 파생상품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카지노 도박장을 연상시키는 투자다’,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금감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선물 시장 발전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실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선물 거래 자체가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투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요소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험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파생상품 허가 시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든가 자기자본 요건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투기적인 고위험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가산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실태를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鄭亨根 委員**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233년 역사의 영국 명문은행인 베어링 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닉 리슨이라는 선물 딜러의 파생금융상품 투자 때문에 결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닉 리슨이 구사한 선물투자전략이 소위 말하는 양매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와 같은 양매도 투자가 성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 양매도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감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증권사의 투자담당자들은 양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회사의 위험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 회사를 독려하고 자체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영국의 사건도 자체 내부의 통제시스템 약화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鄭亨根 委員**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SK글로벌에 대한 부실회계감사 책임을 물어 영화회계법인에 대해 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담당회계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회계법인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을, 담당회계사에 대해서는 대우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SK글로벌 분식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컸고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못하고 또 회계사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鄭亨根 委員** 앞으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렇습니다.

○**鄭亨根 委員** SK글로벌 사태 이후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SK글로벌의 경우 기업의 은행에 금이나 대출은 회계사가 은행에 직접 조회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화회계법인은 SK글로벌을 경유해 조회서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에 불과한데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요새 급증해서 2000년 이후 3년 동안 부실감사를 이유로 투자자 등이 제기한 소송만 해도 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에 총 9건인데 그렇게 보면 2000년 이후 3년 동안에 13건이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일각에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회계감사의 적정성과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 이것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최근 들어와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문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계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회계를 적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분식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문제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 잘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라는 게 과거 경영상태의 축적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지금부터 잘한다고 해서 단절시킬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저희도 사실 고심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식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처리를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 委員** 지금 공인회계사 합격 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가지고 회계감사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질을 떨어뜨렸고 회계사에 합격하더라도 공인회계사 법인에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서 부작용이 나오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걱정 수준을 넘으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외감법 개정안은 6년마다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계법인이 한 피감기업에 대해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왜냐하면 금감원 자료 같은 데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85개 주요 기업 중 40%에 달하는 74개 회사가 7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이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선진적으로 나가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亨根 委員** 지금 SK 정치자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SK해운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조사하다가 비자금 조성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고 투명성 있게 회계를 한다면 자연

히 기업들이 정치권에 돈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방송 등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해마다 엄청나게 정치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식회계 문제, 기업의 투명 처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SK 자금이나 이것이 정치개혁 특히 자금 문제의 투명성에 큰 계기가 되고 미국도 보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서 사회가 맑아지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정치개혁을 간접적으로 주도하는 미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鄭亨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訓平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李訓平 委員 민주당의 李訓平 위원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0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동안 성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해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금융감독원의 이종원 수석검사역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종원 수석의 산재 등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감사합니다.

○李訓平 委員 본 위원이 지난 2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13조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서 4조 4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킨 대우자동차에 신규로 26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질의한 바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는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자금을 채권단에서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대출현황 자료에는 대우자동차에 신규대출해 준 곳이 우리은행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면답변과 기초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자료

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채권단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부담했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공동 부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입니다. 거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 외에 다수의 채권 금융기관이 협력업체 납품자금용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산업은행을 통해 내역을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무불이행 회사로 지정된 해태제과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26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답변 자료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한 곳이 해태제과가 아니고 JP모건이 해태제과를 인수해 해태제과식품을 신설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투자회사가 채무불이행 회사로 낙인된 국내회사를 인수하면서 모자라는 자금을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이 지원한다는 것이 대출금의 회수 여부를 떠나 과연 신중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은행이 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李訓平 委員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 사실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점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李訓平 委員 신용카드 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사 현금대출 비중 준수 시한 3년 연장,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완화 등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완화대책 발표가 있은 후,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의 냉온탕식 카드정책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

쳐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서는 마치 규제완화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카드사들이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다시 대폭 늘려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규제완화를 위한 여신전문업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부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년 말까지로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李訓平 委員** 시행령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에서 마치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카드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간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카드의 부정 사용 등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의 걱정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혹시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현금비중 축소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시행령 개정 시 개정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유는 급격하게 내년에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줄인다면 1년여간 25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사전에 그에 맞추어서 대비하도록 미리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연체율문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訓平 委員** 며칠 전 국민카드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은행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고 신용불량자가 일자리를 얻으면 채무 재조정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재기록도 해지하는 적극적인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340만 명이 넘고 실업자가 75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은행과 카드사 전체에 적극 권장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도 구

하고 실업자도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도 그 일환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국민은행의 경우는 서민금융과 카드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訓平 委員** 다음은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금융사고나 억울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과실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잇달아 금융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좀처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민원이 3~4만 건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그 일에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런 우월적 지위가 있어서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문제는 고객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고객이 받는 보상금은 그동안의 소송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를 무시하고 소송까지 진행시켜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감독기관도 해당 금융기관에 엄한 패널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피해가 사법심판을 받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법률적으로 다툼이 일어난 문제로서 법률이 해결한 문제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감독분담금 요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초에 KDI에 의뢰한 일이 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李訓平 委員**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金融監督院企劃調整局長 柳寬宇** 기획조정국 柳寬宇 국장입니다.

지난 4월에 KDI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고, 9월 중순에 초안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李訓平 委員**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2000년에 709억 원으로 금융감독원 전체 예산의 48.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53억 원인 60.8%로 크게 늘었습니다.

매년 감독분담금이 큰 비율로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融監督院企劃調整局長 柳寬宇** 저희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분담금, 둘째는 한국은행 출연금, 셋째는 발행분담금인데요, 한은 출연금인 정부의 비중이 99년 초에는 30%였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10.9%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행분담금의 점유비율도 같은 시기에 25%에서 24%로 감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독분담금의 점유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李訓平 委員** 지난해 금융권역별 분담금 부과율이 증권의 경우 은행·비은행권 보다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분담금 부과율과 관련해 보험·증권 업계 쪽의 불만이나 다른 의견을 수렴해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企劃調整局長 柳寬宇** 지난해에 보험 쪽에서 공식적으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보험업계의 건의내용은 전적으로 부채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분담금 방식을 투입인력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2002년의 분담금 방식을 2001년과는 다른 형태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李訓平 委員** 한국은행 출연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분담금 부과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은행권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당초 설립 초기에는 저희 기구가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한국은행에서 많이 분담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한국은행이 점점 출연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의 분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訓平 委員**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이 해마다 오락가락 바뀌면서 금융기관들은 감독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산규모 66조 원이 넘는 조흥은행이 30억 원의 분담금을 낸 반면에 자산규모 2조 4000억 원의 한국투자증권이 33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감독분담금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정한 감독분담금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企劃調整局長 柳寬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부과기준이 매년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9인의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DI에 개선안을 용역 의뢰한 바가 있고 이제 그 초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초안을 근거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좀더 나은 분담금 징수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은행 무인자동화기기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은행원 수는 8만 8261명으로서 2001년보다 1485명 감소한 반면에 국내은행의 은행자동화기기 수는 4만 2455대로 2001년보다 2402대가 증가했습니다.

주5일 근무 실시 이후 무인자동화기기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은 무엇이며 불편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銀行監督局長 鄭成淳** 은행감독국장 鄭成淳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휴일에 현금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았고, 또 기기

가 자주 고장나는지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다만, 주5일제 대비에 따라서 토요일에 기기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업무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비록 5일제를 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李訓平 委員** 무인자동화기기 중 현금자동지급기의 경우 기능의 별 차이가 없는데도 설치비용이 적게는 753만 원에서 많게는 4600만 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은행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銀行監督局長 鄭成淳**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동화기기를 크게 나누면 CD기하고 ATM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성능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ATM기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입·출금이 가능하고 CD기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성능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訓平 委員** 무인자동화기기와 관련된 사고가 2001년 3건에 5억 8600만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건에 7억 1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숨기고 있는 사고까지 계산하면 그 건수와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이용빈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무인자동화기기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金融監督院銀行監督局長 鄭成淳**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해당 자동화기기의 고객정보에 접근하기 쉽고 현금카드의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은행이 자동화기기 운영업무를 외부사업자에게도 위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각 은행에 지도를 했습니다.

○**李訓平 委員**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신용카드의 전자금융 이용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 끝나지만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성실히 해 주시고, SK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SK그룹 회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증

인 신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在昌** 李訓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위원 질의 및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안희정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委員長 李在昌** 같이 오신 변호사도 같이 나오시지요.

○**金文洙 委員** 변호사께서도 나오시지요.

안희정 증인은 지난번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때 입원하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오늘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주요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진실한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꼭 다룰 만한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셨고 또 안희정 증인도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까지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그것을 왜 자꾸 묻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주요한 증인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안희정 증인한테 물어보는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8일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때 “장수천 사업을 위해 샘물 판매회사인 오아시스위터를 만들고 안희정을 투입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장수천이나 생수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백히 했는데 그 점 인정하시지요?

○**證人 安熙正** 그건 다릅니다.

○**金文洙 委員** 아니, 나는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證人 安熙正** 그 말씀을 인용하셨으니 그 인용의 사실은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金文洙 委員** 한번 해 보세요.

○**證人 安熙正** 저도 철이 들고 나서 제 책임하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휘하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한한 자기책임으로 표현하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이며 또한 사회적인 책임은 제 책임하에 진

행된 사업입니다. 그 점은 다릅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책임으로 했겠지만 대통령 기자회견문에 이 사업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경제활동’이라고 밝혀 있거든요.

○證人 安熙正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金文洙 委員 “정치를 하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자기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니 당신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盧武鉉 대통령의 보좌관 등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고, 그 틀을 통해서 대통령을 돕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소와 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제가 했던 행위 전부를, 광의의 대통령 참모그룹에는 들어가나 구체적으로 항상 연동시켜서 표현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좀 다릅니다.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오아시스 위터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安熙正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金文洙 委員 거기에 안희정 증인이…… 이것이 워낙 복잡해서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수천이고 여기가 오아시스위터이고 나중에 오아시스로 판권을 팔지요? 위터코리아가 다시 나중에…… 여기에도 보면 선봉술, 김각노, 김태구 같이 있어요. 이렇게 4개 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 봅니다.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위터코리아는 뭐지요?

○金文洙 委員 위터코리아는 신남철 민주당 대선 동구지구당 위원장이……

○證人 安熙正 그건 아닙니다.

○金文洙 委員 그다음에 이사에 선봉술인데 선봉술이 여기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위터코리아 이사에 선봉술, 이사에 김각노 여기 또 장수천……

○證人 安熙正 위원님, 왜 그리 됐는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金文洙 委員 하세요. 김태구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證人 安熙正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도에 대통령께서 보증채무 때문에 끌려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터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장수천이 경매되고 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신경매자들은 경매물건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보통 전에 있던 이사진들을 잡고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선봉술 씨와 누군가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위터코리아를 함께 한 몽치의 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하도 복잡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이것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증인께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풀 것은 풀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지 않냐 그 겁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장수천을 인수할 때 장수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무가 얼마였지요?

○證人 安熙正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4억의 보증을 했는데 추가투자를 해서 6억의 채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수천 주주현황을 보면 최대주주가 盧武鉉 대통령하고 김각노 두 분이었어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런데 97년 11월 21일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리스여신 취급 시에 나온 자료인데 거기를 보면 안희정 증인도 장수천의 500주를 가지고 있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이게 1주당 1만 원으로 총 500만 원에 해당되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럼 이 500만 원의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낸 겁니까?

○證人 安熙正 대통령께서 김각노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보증을 섰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채무가 96년 총선에 떨어져서 변호사로 돌아가 있는 변호사 盧武鉉 씨에게 채무 경매장이 날아왔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이 채무를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미성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와 있었어요.

○**金文洙 委員** 여의도 미성?

○**證人 安熙正** 예.

그러니 이 상태에서 김각노 씨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이게 전망이 있습니다”라고 盧武鉉 변호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盧武鉉 변호사께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좀더 투자를 하지” 이래서 그 사업을 같이하게 되면서 “나도 투자한 것이 있으니 그럼 주식을 나누자”고 해 가지고 주식을 나눴는데 이 투자한 액수가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김각노 씨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당시 盧武鉉 변호사께서 저를 불러서 “나와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 네가 가장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되면 큰 돈이 될 거다. 네가 가져라” 이라고서는 그 주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랬더니 “나중에 될까, 안 될까일세”, 참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金文洙 委員** 500만 원을 주식으로 받은 셈이네요.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여기 보면 총 5000주인데 주주가 盧武鉉 1250주, 노건평 1000주, 안희정 500주, 홍경태 500주, 김각노 1250주, 김태구 500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노건평 씨도 여기에 투자를 했었습니까?

○**證人 安熙正**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워낙 원칙이 분명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고향의 노건평 형님에게 주식을 배분하신 이유는 고향의 노건평 형님께서 그만큼의 뭔가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유추할 따름입니다.

○**金文洙 委員** 하여튼 투자를 했든 어떻든 간에 노건평 씨가 실제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지요?

○**證人 安熙正** 장수천의 주주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도 어느 날 불러서…… 저도 주식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 제 객관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金文洙 委員** 돈을 안 내고 그냥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홍경태 씨는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잘 모른다. 주식이고 뭐고 본 적도 없고

종이쪽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證人 安熙正**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 이 과정을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한 한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文洙 委員** 그리고 원래 주식 자체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의 주식 이외에 그 이전에 주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證人 安熙正**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에 변호사 盧武鉉에서 새정치국민회의 金大中 대통령 후보 진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십니다. 그때 저와 나눴던 말씀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니 실질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장수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보증채무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놓고 나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을 얼마만큼은 장수천에 보장을 해 줘라. 그리고 나 때문에 같이 보증채무를 안게 되었던 선봉술 씨가 운영을 하고 나는 빠질게. 얼마 채권 있는 것으로만 할게” 이라고 97년도에 빠져 나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님께서 정치활동을 재개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주식변동입니다.

○**金文洙 委員**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5월 28일 기자회견문에는 “98년 11월에는 선봉술 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고 안희정 씨도 투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오너인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했다”고 해 가지고 “99년부터는 과거의 일을 교훈삼아 판매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오아시스워터라는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고 사업규모도 확장일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安 증인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시점이 전혀 안 맞아요.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金文洙 委員** 97년도에는 빠졌다는데 대통령께서는 “99년도부터는 오아시스워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확장일로를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證人 安熙正** 이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金文洙 委員** 제가 가지는 의문은 이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이 다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들어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어제 하시던 말 다르고 계속 다르고, 또 관련되는 분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실이 2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을 자꾸 다르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커진단 말이지요. 사실 저는 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證人 安熙正**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채무 때문에 자기 주변 관계와 참모들까지 가서 사업을 하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법적 책임과, 주인을 따진다고 보면 盧武鉉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성에서 당신께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사가 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과 함께 투자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金文洙 委員** 그게 아니라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이 회견문을 드릴게요. 읽어 보시고 다시 합시다. 이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시간이 짧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아시스위터를 99년 7월 6일에 설립했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런데 오아시스위터의 주식 1750주, 35% 지분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제가요?

○**金文洙 委員** 예, 안희정 증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총 5000주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위터와 관련해서 權良淑 여사께서 집을 담보로 2000년 3월 29일에 1억을 차입했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權良淑 여사가 집을 담보로 1억을 차입하게 해 줬지요?

○**證人 安熙正** 오아시스에서요?

○**金文洙 委員** 오아시스위터에서.

○**證人 安熙正** 제가 오아시스위터 회사를 설립 하면서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

와 시장 장악력을 높여서 제조회사까지 좋은 값에 팔려고 했던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증채무 때문에 시작된 이 보증관계를 그렇게 잘 끝내려고 했던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아시스위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 지인도 있고 선배도 있고 여러 사람들로 부터 자금을 끌어왔을 것 아닙니까? 끌어온 사람 중의 하나로서 盧武鉉 대통령의 자택도 담보로 잡아서 제가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담보로 받아서 사실상 1억을 차입했는데 차용증이나 이런 것을 쓴 적이 있습니까?

○**證人 安熙正**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냥 담보로 가져왔다?

○**證人 安熙正** 그럼요.

○**金文洙 委員** 그리고 이것은 盧 대통령께서 해주신 겁니까, 권양숙 여사가 해주신 겁니까?

○**證人 安熙正**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이 보증채무 때문에 그것을 면해 보려고 계속 키웠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잘해서 회사를 성공시켜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자금을 거기서 융통해서 쓴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입을 했는데…… 오아시스위터를 2001년 3월 30일에 4억 5000을 주고 팔았거든요.

○**證人 安熙正**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팔 때는 권양숙 여사 명의의 盧 대통령의 명륜동 집에 대한 담보는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證人 安熙正**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건 제가 7억에 팔았어요.

○**金文洙 委員** 뭘 7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證人 安熙正** 오아시스위터를요.

○**金文洙 委員** 이것을 7억에 팔았다고? 4억 5000이 아니요?

○**證人 安熙正** 예. 그런데 제가 2억을 깎아 썼어요. 왜 깎아 썼냐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수업체 현실로 봤을 때 친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7억에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문제 제기를 하길래 내가 “천안에서 목욕탕 하면서 벌어들인 돈 여기서 다 까먹지 말고 당신도 어떻게 시작하는 사업이니 잘해 봐라” 이러면서 2억을 깎아 썼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金文洙 委員 그 사람이 김근보 씨입니까?

○證人 安熙正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 사업이 독자적인 제 판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억에 팔았는데 5000만 원도 아직 못받고 있어요. 생수업체가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아니,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왜 회사를 팔면…… 盧 대통령 영부인께서 안희정 증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지로 생각해서 아무 조건 없이 담보를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다 치고, 저는 이 회사 자체가 대통령 회사라고 보지만 하여튼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나 김근보 씨를 잘 모르는 그런 관계라면 오아시스를 매각할 때 5억이든 7억이든 자기 집 문제를, 이게 왜냐하면 또 집이……

○證人 安熙正 위원님,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위원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고 나서 그 돈을 왜 당장 안 갚았냐는 말씀이고, 나중에 갚았으니 그 사유 또한 권양숙 씨가 가지고 있다가 대선 때 대통령후보 재산 신고 때 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던데……

○金文洙 委員 아니, 꼭 그런 것보다도……

○證人 安熙正 아니, 저는 그렇게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것을 팔아서 급한, 공장 주변의 밀린 임금이나 기타…… 정말로 그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우선 채무 변제를 했습니다. 채무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가 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데 썼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연구소에 썼습니까?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그 당시 장부 없이 쓴 돈이어서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4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한 3억여 원은 주변을 정리하는 데 쓰고 한 1억 원 가량은 연구소 확대·개편하는 데 썼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왜 권 여사한테 안 갚았냐? 그 당시 제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갚

을 여력이 없었어요. 벌여 놓은 연구소사업 때문에 권 여사한테까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 말씀을 좀 믿어 주십시오. 나중에 명륜동 집을 파서 가지고 그 돈으로 갚았지 않습니까?

○金文洙 委員 그렇습니다.

(李在昌 위원장, 金富謙 간사와 사회교대)

○證人 安熙正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왜 김근보 씨한테 계속 그것도 남아 있느냐? 제가 김근보 씨한테 5000만 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회사를 팔았는데 거기 1억 원짜리 회사 명의의 대출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1억 원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나한테 빨리 갚든지, 안 그러면 나도 지금 1억 원을 당장 은행 대출을 돌릴 수 없으니 네가 그냥 명의라도 계속 빌려 주든지…… 이렇게 서로 뭉개고 한 1년여를 끌어 버린 겁니다.

○金文洙 委員 朴柱千 위원님이 저한테 시간을 조금 빌려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委員長代理 金富謙 20분을 다 주시는 것은 안 되고요. 적당하게 10분 정도 주시겠어요?

○朴柱千 委員 20분을 다 주었다고요.

○委員長代理 金富謙 20분을 다 주신다고요?

○金文洙 委員 제가 먼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富謙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온 적 있습니까?

○金文洙 委員 아니, 조금만 더 하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길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자르기도 뭐하고……

○證人 安熙正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富謙 우선 10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증인께서 판 것까지는…… 이것도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을 읽어 보셨지요? 여러 기사에서 나온 것을 보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여기에 나라종금하고 오아시스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 같은 것들 다 보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신문기사에서……

○金文洙 委員 그런 의혹은 차차 또 하고……

우선 저는 권양숙 여사 명의의 이 집이 어떻게 매도한 이후 만 2년 동안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 회사에,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그것도 생수회사가 안 되는 회사에 담보로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오해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證人 安熙正 제가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金文洙 委員 아니, 저는 安 증인이 ‘갚아라, 안 갚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제 말씀은 安 증인한테 채무관계가 남아 있다 이런……

○證人 安熙正 金文洙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저는 그게 해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姜錦遠 증인이 이야기하기를…… 강금원 사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런데 강금원 사장이 올해 6월 8일 언론에 이야기하기로는 “생수회사를 나라종금에 팔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종금 돈 2억 원을 회사 매매에 앞서서 미리 돈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 증인하고 두 분이 아주 가깝잖아요?

○證人 安熙正 아까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그 돈의 성격과 이 문제가 지금 재판에서 성격을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분하게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安熙正 예, 그게 제 답변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제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생수회사하고 바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내가 묻습니다.

○證人 安熙正 생수회사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재판에서 그 돈의 성격에 대하여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金文洙 委員 아니, 성격은 내가 묻지 않고, 나라종금의 돈 2억을 이 회사 매매 전에 미리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사 매매와 관

련해서 매매계약을 쓴 것은 아니지만 받은 것은 사실이다……

○證人 安熙正 위원님, 그게 지금 재판과정의 주요한 쟁점입니다.

○金文洙 委員 강금원 증인과 증인, 두 분이 가까운 것이 사실이지요? 상당히 흥허물 없이 터놓고 이야기하지요? 증인은 부산의 창신섬유 공장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강금원 회장의 창신섬유 공장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친한 사이니 공장도 방문해서 놓고 그랬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러시지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금원 증인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놓고 본인이 “99년도 6월 8일에 생수회사를 나라종금에 팔려고 했으며 실제 매매 교섭이 오갔다. 나라종금 돈 2억 원은 회사 매매에 앞서 미리 받은 돈이다. 盧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팔려고 시도했고, 실제 돈도 일부 오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보도되어 있거든요.

○證人 安熙正 아마 그건 강 회장님께서 앞뒤 사정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었다는 노력을 한편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저의 노력을 나중에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라종금에서 받은 돈 2억이 투자금이다” 그렇게 하고, 또 9월 29일에 김효근 증인이 여기 왔습니다. 그때도 투자금이라고 말했고, 강금원 증인은 “매매 예약금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입니까?

○證人 安熙正 위원님, 그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재판 서류 중이고 서로 시비를 다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더…… 또한 사법부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좀 현명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그 점은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우선 그렇게 해 놓고 이따가 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강금원 증인의 말은 “盧 대통령은 나

에게도 생수회사 매수를 제의했으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증인에게서 대표이사로서 강금원 회장에게 오아시스워터를 매각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證人 安熙正 제조회사 장수천과 판매회사 오아시스워터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좋은 당자가 있으면 팔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했습니다. 당자가 나서는 않았고요.

○金文洙 委員 그 중의 한 사람이 강금원 회장이나……

○證人 安熙正 제가 이리저리 권유는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교섭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럼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겠네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다음에 오아시스워터 매각과 관련해서 김근보 씨를 어떻게 알게 됐지요? 김근보 씨가 오아시스대표이고, 여기에 팔았지요? 김근보 씨는 어떻게 알게 됐지요?

○證人 安熙正 오아시스워터 판매회사를 팔려고 해 보니 이미 브랜드와 시장 대리점 조직망이 일반 대기기업의 판매 조직망과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단가·조건·고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서 기존의 유명 브랜드들하고 제가 협상해 봤는데 협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난항을 겪고 있었고, 그때 저희 제조회사인 장수천은 관정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오아시스워터 판매회사를 팔지 못하면 장수천 제조회사로부터 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공급 못 받으면 판매회사 조직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여러 회사들을 두드려 봤는데 다 맺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유명 브랜드 기업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사람하고 제가 거래하는 것이, 그 사람도 어차피 생수사업을 하려면 나와 똑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경매지에 새로운 제조회사 경매하는 분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金文洙 委員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證人 安熙正 저희 영업부 직원들을 수배해서 그분을 소개받아서 ‘그러면 한 번 봅시다’ 해서 영업부 직원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金文洙 委員 김근보 씨를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럼 그때 처음 알았네?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실제 여기에 판매한 돈은 7억에 팔아서 2억은 깎아 주고 마지막에 5억에 거래했다, 그럼 계약서가 있습니까?

○證人 安熙正 예, 계약서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제출할 수 있습니까?

○證人 安熙正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서류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文洙 委員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安熙正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리고 검찰에 많은 서류가 압수 되었지요?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별로 압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金文洙 委員 언론에는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證人 安熙正 집에 와서 열심히 추적을 하셨는데 워낙 오래된 사건들이어서 집에 별로 자료가 없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아까 7억에 팔기로 한 것을 5억으로 깎아 주었다고 하지만 5억이라도 이 판매대금은 굉장히 호의적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까?

○證人 安熙正 전혀 아닙니다.

○金文洙 委員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盧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이 생수회사 전체의 실제적 경영책임자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천의 부채만 하더라도 이자까지 합치면 약 34억 4200만 원이네요. 34억 4200만 원이 채무였는데 盧 대통령 명의로 갚은 돈은 1원도 없지요?

○證人 安熙正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盧武鉉 대통령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본인이 최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언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盧 대통령 명의로 부채 34억 4200만 원을 갚은 것은 1원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장수천과 오아시스워터, 오아시스워터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전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회사의 분리와 위장분산 과정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제가 했거든요.

○證人 安熙正 그것은 정말 지나치신 것입니다.

○金文洙 委員 증인이 생각을 때 지나칠지 몰라

도 제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證人 安熙正 무리입니다. 저는 정말로 멀리서 의원님의 보도자료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정말로 회관에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金富謙 간사, 李在昌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文洙 委員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증인이 알고 있었지만 盧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에 재산신고한 것을 보니까 74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수십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대통령을 하시는 분의 재산이 742만 원이라고 그러면, 증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신 입장에서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사실 아닐까요?

○證人 安熙正 대통령께서 81년인가 80년 초반에 인권변호사로 들어서신 이후에…… 부산에서 잘 나가던 조세변호사로서 그때 3~4년 돈을 만 짝 버셨어요. 그 돈 가지고 지난 10여 년, 한 20년 가까운 시간에 다 고갈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항상 가정의 고통이었고 그런 점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다른 은폐나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오해이십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데 저도 사실 대통령이 10억을 달라, 강금원 씨가 저한테 8억을 달라, 이기명 씨는 4억을 달라고 해서, 대통령과 후원회장 또 실질적인 후원회장인 강금원 회장 이렇게 3명이 저보고 22억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투옥 수배도피 이런 생활을 한 저도 지금 제 집이 있고 제 차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당신이 거주하실 집도 없다, 차도 없다, 돈도 742만 원밖에 없다’……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證人 安熙正 그것이 사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명륜동 자택을 파시면서 그때 담보로 들어갔던 각종 대출금들을 갚고 나니 그렇게 남으신 모양이지요.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金文洙 委員 지금 安熙正 증인은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독립된 정치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盧 대통령을 도왔을 따름이지 본인이 직접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정치인은 아니지요?

○證人 安熙正 그 질의는 어떤 의도이신지, 본질을 해서 제가 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본인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安熙正 지금 정치자금법상에 그렇지요.

○金文洙 委員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런데 나라종금으로부터 받은 2억 원, 그다음에 아즈텍 창투사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 때문에 기소되어 계시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몇 억씩 받으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安熙正 증인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게 좀……

○證人 安熙正 저도 무척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저는 무죄로 나왔어야 됩니다.

○金文洙 委員 물론이지요.

○證人 安熙正 무혐의로 나왔어야 됩니다.

○金文洙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證人 安熙正 아마 무혐의로 나오면 위원님은 무엇이라고……

○金文洙 委員 安熙正 증인은 盧 대통령을 돕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방법이 安熙正 증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돈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그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면 실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盧武鉉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安熙正 증인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면서 지금 또 재판에 회부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證人 安熙正 거기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게……

○金文洙 委員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證人 安熙正 나라종금 2억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나라종금은 모릅니다. 넥스청바 지라든가 김효근 씨 학교 문과대 1년 선배가 벤처업체에 5억을 투자해서 3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배한테 가서 조금씩 다 얻어쓰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

로 사업을 하는데 형님 투자 좀 해 주시오”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아시스워터 살림을 꾸려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金文洙 委員** 지방자치연구원에 2억 5000 이상씩 자금을 주고 또 돈 받은 것도 지방자치연구원에 갖다 썼다는 것은 진술한 바 있지 않습니까?

○**證人 安熙正** 저는 盧武鉉 대통령의 참모로 일했으나 盧武鉉 대통령과 함께 일한 모든 참모들은 10년 동안 盧武鉉 대통령이 봉급을 주어야 될 고용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 그룹이 또한 우리 캠프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金文洙 委員** 제가 정리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문제는 安熙正 증인뿐만 아니라 盧武鉉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요즘 돈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盧武鉉 대통령께서 결국 여러 가지 정치활동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분들에게 安熙正 증인처럼 오아시스워터 대표이사 사장도 맡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安熙正 증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웃을 년센스이다, 安熙正 증인 보고 정치자금 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돈 가진 사람이 그런 눈먼 돈을 줄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벌 리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너무 이런 부분의 법 집행 자체가 휘어지는, 왜곡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文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富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富謙 委員**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잠깐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과 규칙에 따르면 각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이 15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충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인 경우에 예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 사이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뭐를 확인해요?

○**金富謙 委員** 나중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위원장님, 오늘 일부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신용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원리금 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다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상각채권은 50%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제가 신문을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열심히 돌려막기라도 해서 혹은 자신의 회생을 통해서 신용불량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 여기에도 보면 더 우스운 것은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아 있고 오히려 끝까지 배짱을 튕기면서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정말 웃지 못할, 신용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금감위원장님 생각에 금융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들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이런 제안이 오면 혹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면 우리 사회의 신용문제와 함께 결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것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관계자, 파악된 내용 맞습니까?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예, 맞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 입장정리를 못 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의 쟁점은 정확하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상장이익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생명보험사 측 입장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의 배분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것은 재산권 침해 문제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시민 단체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국내 생명보험사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했던 것 아니냐, 따라서 상장이익을 주식으로서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쟁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일 것 같은데 삼성생명은 지금 총자산이 약 75조에 이르지만 대주주가 출연한 자본금은 4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은 약 30조에 이르지만 대주주의 출연 자본금은 불과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두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자산을 이루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로 영업만 잘했다, 주주들의 헌신적인 창의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야말로 여전히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들은 결국 소비자 내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공동의 기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주주와 회사의 경영능력도 많이 기여했겠습니까마는 그동안 보험에 가입해 준 계약자들의 기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상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회사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증자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덩치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도 믿지 않습니다마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상법상의 허점이라기 보다는 원래 금융회사라는 것이 자본금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고 은행이라면 고객의 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해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특수성이라기보다도 이들 회사들이 처음 출발했을 당시의 보험사의 면허는 정치권력이 줄 수 있는 큰 특혜에 속했습니다. 그런 잔재때문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지금 교보생명 측은 사재 출연을 통한 상장 추진방안을 제시한 데 비해서 삼성생명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감사보고

서에서 교보생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3.18%에 불과한 반면 삼성생명은 무려 10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보생명은 수익성 저하로 인해 상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삼성생명은 상장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여러 가지 협상방안을 내놓았습니까마는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들이 여러 가지안을 가지고 그동안 자문위원을 통해서 접촉하고 가급적이면 협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초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성격과 양쪽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과거의 금융정책을 보면 이익당사자 간에 충돌이 있더라도 금감위가 특유의 권위를 발휘해서, 또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정리해 왔는데 이번에만 유독 민간기구인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전부 일임해 놓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기업공개나 상장에 대해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내면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 말씀은 금년 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상장에 대한 두 회사의 입장이 상장권고안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금년 중에 상장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렇게 되면 조세감면특례에 따른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혹시 이 법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법시행령이 어떻게

되고 관련부서에서 연장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이 문제에 관한 한 금감원의 입장은 적어도 상장자문위원회에 일임한 만큼 거기의 논의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이상은 안 나가고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시간을 끄는 것도 좋지 않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음주 중에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상장자문위원회에 촉구했습니까, 양 회사에 촉구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상장자문위원회에 촉구하면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각 회사를 통하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富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벌소속 투신사, 증권투자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규정이 일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재벌소속 금융·보험 회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던 것을 일정 부분 조건을 붙여서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점검하였더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1개 재벌소속 금융·보험사가 73개의 계열회사에 대해서 239회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권 완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와 관련된 것은 총 70회에 이릅니다. 이 70회 중에서 법 개정의 목적이었던 소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개정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라는 과연 몇 회나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서 이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재벌소속 투신사,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립투표만 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리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금융회사들이 이미 의결권을 행사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의 개정목적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려했던 부정적 효과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 때문

입니다.

특별히 완화의 조건이 있는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감독규정 등 하부규정에서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해 신탁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라고 규정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사실상 감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알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규정 개정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일부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각 부처와 민간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바로 이런 재벌 계열투신사나 증권투자회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만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金富謙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풀어 달라, 의결권 행사의 한도를 조금 더 늘려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아마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요.

○**金富謙 委員** 단순히 금융감독기구의 총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것이 경제 윤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권이나 의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소비자인 고객의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그러니까 이 법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본 위원의 조사

에 따르면 나오기 때문ですよ.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

○金富謙 委員 그래서 막연히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히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삼성투신문제도 시민 단체에서 제기해서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계량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金富謙 委員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다는가 혹은 사후에 금감원에 필요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그 작업을 전반적으로 태스크 포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金富謙 委員 위원장님께서서는 전반적인 논의와 고민만 계속하시다가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금년 말까지는 대충 끝낼 예정입니다.

○金富謙 委員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30%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 숫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 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委員 본 위원은 의결권 행사 관련규정에 대해서 행사요건을 엄격화하고 금감원의 통제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의결권 행사 한도의 축소 등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앞장설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 포스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회에 빨리 보고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金富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富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鎮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鎮出 委員 林鎮出 위원입니다.

安熙正 증인,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달변가이신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林鎮出 委員 묻는 내용 이외의 것을 많이 말 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달변가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패스하셨네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또 철학과를 졸업하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러면 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적인 꿈이 있으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全斗煥 군사정권이 저를 내몰았습니다. 제가 80년 계엄사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바람에 정치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원래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치적인 꿈이 없었습니까?

○證人 安熙正 반반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는 학생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林鎮出 委員 학생운동은 본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학생운동과 정치적인 꿈이 있는 것과는 틀리니까요. 학교에 다닐 때 본 위원은 벌써 정치적인 꿈이 있었거든요.

○證人 安熙正 위원님처럼 구체적인 공직에 출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래도 학생운동을 했다면 대단히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과였을 텐데 87년 고대 애국학생회와 관련해서 구속된 적이 있으시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林鎮出 委員 얼마나 구속되었고 판결에서 형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林鎮出 委員 집행유예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1년 6월 같습니다.

○林鎮出 委員 또 88년 반미청년회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되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때는 형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林鎮出 委員 집행유예를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년 6월 또는 2년 정도 받았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林鎮出 委員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 全斗煥 정권 당시 생기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林鎮出 委員 원래는 있었는데 全斗煥 정권 때문에 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證人 安熙正 제가 그쪽으로 내몰렸습니다. 제 인생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그쪽 방향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林鎮出 委員 내몰렸다는 것은 어떤 식인가요?

○證人 安熙正 제 개인적인 특성이나 여러 모로 봤을 때 정치인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선 대단히 의협심도 강하고 달변가여서 충분히 정치적인 꿈을 기르셨다, 대체적으로 주변을 보면 철학과 나오신 분들이 정치적인 꿈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셨으면 두뇌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고요, 제 학생시절 생각도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98년에 盧武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셨나요?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林鎮出 委員 보좌관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林鎮出 委員 국회에서 보좌관 지낸 경력은 있으시지요?

○證人 安熙正 선거 때 이분을 위해서 선거운동해야 되니까 보좌관 명함을 썼습니다마는 비서실에 등록해서 비서업무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林鎮出 委員 盧武鉉 국회의원 후보 때 명함을 쓰셨군요. 무슨 명함을 쓰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盧武鉉 대통령께서 원외에 계셨을 때는 ‘노무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林鎮出 委員 제일 처음 盧武鉉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몇 년도였습니까?

○證人 安熙正 92년도에 연구소를 만들면서요.

○林鎮出 委員 그때는 무슨 명함을 쓰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 후에 盧武鉉 국회의원 보궐선거할 때는 무슨 명함을 쓰셨습니까?

○證人 安熙正 그때는 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젊은 참모들이 다 보좌관 명함을 ‘보좌역’ 이

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옆에서 수행하셨나요?

○證人 安熙正 주요한 연설이나 대중집회 이런 데에는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林鎮出 委員 찬조연설도 하시고?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제가 대중연설을 못 합니다.

○林鎮出 委員 찬조연설 안 하셨나요? 거리 유세 같은 것은 찬조연설 등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셨나요?

○證人 安熙正 제가 소질이 없습니다.

○林鎮出 委員 아깝네요. 굉장히 달변가신데.

그러면 盧武鉉 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누가 추천했나요? 동기가 어떻게 됐나요?

○證人 安熙正 88년에 盧武鉉 대통령이 88청문회 스타로, ‘뗏다’고 표현합니까? 표현이 너무 가볍습니다만, 하여튼 이름이 널리 알려지시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것처럼 열정을 가지신 분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권의…… 대부분 저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아니, 본인의 인연이 어떻게 되었나 간단하게……

○證人 安熙正 89년도에 제가 다른 의원님 비서관으로 처음 출발했는데, 그때 盧武鉉 의원 보좌관을 하던 이광재 씨가 연대 83학번이고 저는 고대 83학번이어서 학생운동 할 때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그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드리게 됐었지요.

○林鎮出 委員 그래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은, 누가 먼저 권유했나요?

○證人 安熙正 거의 동시……

○林鎮出 委員 동시라는 것은 이상하지요.

○證人 安熙正 왜냐하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林鎮出 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盧武鉉 대통령하고 안희정 씨하고 함께 만들었군요?

○證人 安熙正 물론 대통령께서 주도하셨지요.

○林鎮出 委員 사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셨군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후보 당시에 도 정부팀장을 맡으셨지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리고 2002년에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되시고 난 다음에 비서실에 근무하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랬습니다.  
 ○林鎮出 委員 비서실에서 뭘 맡으셨나요?  
 ○證人 安熙正 정부팀장을 맡았습니다.  
 ○林鎮出 委員 팀장이시면 정치적인 관계는 전부 다 분석하시고 기획하셨겠네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현재는 당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證人 安熙正 전에는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당적이 없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럼 탈당하셨나요?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럼 앞으로 당적을 가지신다면 신당으로 갈 의향이 계시겠네요?  
 ○證人 安熙正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따라서…… 같이 모시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林鎮出 委員 아니, 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으면 존경하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계시고 또 신당에도 계실 텐데, 그럼 안희정 씨가 존경하는 분들이 신당 쪽에 더 많다……  
 ○證人 安熙正 아니요, 그 표현은 뭐…… 어떤든 간에 신당 쪽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적을 그쪽으로 신고하기는…… 발기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林鎮出 委員 관리인으로 참여한다?  
 ○證人 安熙正 발기인, 창당 발기인으로요.  
 ○林鎮出 委員 아,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에요?  
 ○證人 安熙正 예, 신당이 지금 현재 창당발기인 모집 중에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모집 중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실 예정이냐?  
 ○證人 安熙正 예, 그럴 계획입니다.  
 ○林鎮出 委員 누가 권유 안 해도 스스로가 참여하실 예정이냐?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권유한 적은 있었나요?  
 ○證人 安熙正 신당 참여를요?  
 ○林鎮出 委員 예.  
 ○證人 安熙正 특별히……  
 ○林鎮出 委員 특별히 권유한 사람은 없었나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혹시 盧武鉉 대통령 측에서 ‘신

당으로 가라’ 이런 말씀은 없었나요?

○證人 安熙正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林鎮出 委員 처음에 장수천을 전부 기획하고 출발할 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출발할 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기획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안희정 씨의 아이디어였나요?

○證人 安熙正 제조업체 장수천은 제가……

96년도에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신 이후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林鎮出 委員 아니, 그 말씀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

○證人 安熙正 예. 그때 장수천은 이미 설립되었었고요.

○林鎮出 委員 아니, 안희정 씨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나 그것만……

○證人 安熙正 아니에요, 아닙니다.

○林鎮出 委員 그럼 盧武鉉 대통령의 아이디어입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 당시에는 盧武鉉 변호사께서 김각노 씨 보증을 섰고 그 관계에서 출발한 회사가 장수천입니다.

○林鎮出 委員 본 위원이 아까 金文洙 위원하고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장수천은 어디까지나 내가 전부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은 내가……’

○證人 安熙正 오아시스워터라고 하는 판매회사입니다.

○林鎮出 委員 아, 오아시스워터. 미안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워터 자체가 장수천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證人 安熙正 장수천은 OEM으로 납품을 받는 회사입니다.

○林鎮出 委員 OEM으로 오아시스워터가 전부 대리경영해서 납품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수천에 납품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시스템 아닌가요?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회사는 분리했습니다. 운영도 분리되어 있고요.

○林鎮出 委員 회사 분리, 운영 분리는 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2개를 분리해서 장수천에서는 물건을 받고 오아시스워터에서는 OEM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런 관계입니다.

○林鎮出 委員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회사 2개를 만들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영이 동일성의 회사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참고로 제가 여쭙 보는 겁니다.

○證人 安熙正 아니, 어떤 관계냐면 장수천에서 밥을 굶을 때 오아시스 직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둘의 관계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林鎮出 委員 돈하고 관계없이 평소에 나라종금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證人 安熙正 나라종금은 제가 모르는 회사입니다.

○林鎮出 委員 전혀 모르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럼 김호준 대표하고는 만난 적도 없나요?

○證人 安熙正 林 위원님,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종금과 받은 돈의 성격, 과정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고 거기에서 제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좀더 차분하게, 저도 유·무죄를 다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林鎮出 委員 그러면 김호근 씨하고는 나라종금……

국회도 입법기구이고 또 증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가볍게 답변하시지요.

○證人 安熙正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林鎮出 委員 그러시지요. 말씀 잘 하시네요. 오늘 변호사 안 오셨어도 충분히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변호사가 공연히 입회하신 것 같고……

그리고 김호근 씨는 학교 관계라고 그러셨나요?

○證人 安熙正 예, 선후배 관계인데요.

○林鎮出 委員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어요?

○證人 安熙正 예.

林 위원님, 그건 아까 취지로, 그 주제는 제가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자꾸자꾸 번져 나가는 질의이기 때문에……

○林鎮出 委員 아니, 괜찮아요. 전문적인 것,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위원들이 다 물으신 것 같아

서 저는 가벼운 것, 일반적인 것을 여쭙 보는 거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김호근 씨하고 사귄 지가 몇 년쯤 됐나요?

○證人 安熙正 그건 학교 다닐 당시에 저희가 비합법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林鎮出 委員 그때도 김호근 씨하고는 각별히 친했군요?

○證人 安熙正 학교 선배로 아는 정도입니다.

○林鎮出 委員 김호근 씨한테 2억을 받으실 정도 같으면 대단히 친하셨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證人 安熙正 그것은 마찬가지로 논리로 위원님 답변에……

○林鎮出 委員 답변할 일이 없습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건 제가……

○林鎮出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金文洙 위원께서 안희정 씨를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서 들어도 굉장히 걱정하고 아끼는 의미로 질의하시던데,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여쭙 본 것들이…… 본 위원도 여성이지만 정치학과에 다니고 학생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證人 安熙正 예, 알고 있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래서 의협심도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결벽성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아깝다…… 실례지만 몇 년생이지요?

○證人 安熙正 64년생입니다. 용띠입니다.

○林鎮出 委員 64년생이면 제가 대학원 다닐 시절에 태어나셨는데, 아직 앞으로 창창하신데, 그러면 자기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미래가 보이시고…… 또 국회도 관련하셨고, 정치활동도 관련하셨고, 정당에도 관련하셨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시하는 지방자치 경영 문제도 사무국장이라는 중요한 포지션에도 계셨다면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젊은이로서의 의협심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이것은 내가 신의를 지켜야지. 내가 다 총대 메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차제에 ‘내가 총대 메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나 하나 희생하면 뭐가 되겠지’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에 뭔가 올바르게 해야 되니까 내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證人 安熙正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林鎮出 委員 나는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현재 盧武鉉 대통령에게 큰 상처가 간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證人 安熙正 안 그렇습니다. 저도 꼭 굳이,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원칙으로 봐도 그렇고, 조그마한 집안의 가정사일 때도 엄마가 애 혼낼 때 아버지가 불러다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林鎮出 委員 아니, 자기관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은 아까워서, 자기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억지로 논리를 많이 펴 가지고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내가 총대를 메겠다, 내가 먼지 가마니를 다 뒤집어쓰겠다……

○證人 安熙正 위원님, 제가 무슨 총대 멘 것으로 보이십니까?

○林鎮出 委員 본 위원이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총대를 땀다’라고 표현하시면 저를 많이 칭찬해 놓으시고 나서 지금 또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林鎮出 委員 아, 그런가요?

○證人 安熙正 예. 그건 제 책임하에 땀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林鎮出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대체적으로 제가 어른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좋아하겠지요.

○林鎮出 委員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보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나한테 와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한다면 전 거절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증을…… 과거에 좀 해서 혼이 났기 때문에, 내 보좌관이 벌써 몇십년을 내 옆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 보증을 서 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안희정 증인은 굉장히 신뢰를 받으셨는가 봐요. 盧武鉉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로부터 그런 재정 보증을, 담보를 받으셨다는 것은 보통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세요?

○證人 安熙正 그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시

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지요. 그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많은 보증채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떨어 나가는데, 함께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林鎮出 委員 어쨌든 신뢰를 참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가 그런 담보를 제공했을 것 아니겠어요?

○證人 安熙正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영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林鎮出 委員 아스텍창투 아시지요?

○證人 安熙正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林鎮出 委員 그런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런데 아스텍창투의 대주주가 우리들병원 이상호 병원장이시지요?

○證人 安熙正 ……

○林鎮出 委員 좋습니다. 그럼 이상호 원장하고는 평소 때 가까우신가요? 평소 때 잘 아셨나요?

○證人 安熙正 제가 나중에 회관에 놀러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선서를 할 때 양해를 구하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원칙은 그대로 지키도록……

○林鎮出 委員 아니, 이 내용은 깊이 안 들어가도, 이상호 원장하고는 평소 때 잘 알고 지내셨나요?

○證人 安熙正 예,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林鎮出 委員 오래됐나요?

○證人 安熙正 예, 오래됐습니다.

○林鎮出 委員 盧武鉉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깝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여기서 1억 9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

○林鎮出 委員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땀땀하다면 이런 것은 다 대답하셔도 될 텐데요. 좀 전에 金文洙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證人 安熙正 제가 위원님들과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듯이, 또한 저는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그 과정에서 또한 피고인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앞뒤를 다 투도록 도와주십시오.

○林鎮出 委員 검찰이 이상호 원장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가셨을 때 이상호 원장하고의 관계를 묻던가요? 그거야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證人 安熙正 그건 제가 정말 다음 기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林鎮出 委員 그래요.

홍경태 씨라고 아시지요?

○證人 安熙正 예, 압니다.

○林鎮出 委員 홍경태 씨가 지난 9월 2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나와서…… 홍경태 씨 줄을 가지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런데 본인은 “줄을 가지고는 있어도 그 줄을 보지도 못했고 이름만 등재된 이사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安熙正 보통 회사 설립을 할 때 회계감사가 계시는데 제가 사업을 안 해서 과정을 잘 몰라서 그분께 개인회사가 좋으나, 주식회사제도가 좋으나 이런 것을 다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오래 해 왔던 우리 식구들, 같이 아는 사람들 내에서 이름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경태 증인이 국감장에 와서 증언해 놓은 내용을 보면 주식 분산의 이유로 측근들에게 형식적으로 주식 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安熙正 오아시스위터의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林鎮出 委員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회사 설립의 편의상 저랑 가까운 사람들을 죽 주주로 세워서 회사를 만든 과정일 겁니다.

○林鎮出 委員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세간에는 ‘이 자체가 100% 盧武鉉 현 대통령의 주였다’ 이렇게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셨지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어떠세요? 곤혹스럽습니까?

그런데 홍경태 증인이 국회에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말한 내용만 보더라도 “주식을 본 사실도 없고, 본인은 주식을 전혀 가진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證人 安熙正 林 위원님, 그런데 그 주식의 실

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林鎮出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證人 安熙正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돈 값어치가 됩니까?

○林鎮出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證人 安熙正 기본적으로 오아시스위터라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면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로 주주 구성을 해서 만든 것이지요.

○林鎮出 委員 결론적으로는 위장이었지 않나 그거지요.

○證人 安熙正 위장을 한다면 뭔가 숨겨야 될 실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숨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林鎮出 委員 실내용은 盧武鉉 대통령, 즉 담보를 대준 권양숙 여사와의 관계에서 100% 주주였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證人 安熙正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부총재 시절에 지구당 위원장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지구당 위원장이 하는, 아저씨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지구당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길래 당의 부총재로서 용돈이라도 줘야 될 텐데 평상시에 한 번도 못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몇 군데 보증을 서셨어요.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과정 중에 하나의 사업에 보증이 너무 크게 걸려 가지고 나중에 함께 투자했다가 다 망했다, 이것이 객관적 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林鎮出 委員 그러면 오아시스위터 설립 시 자금은 누구의 자금으로 했습니까?

○證人 安熙正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끌어당겨서 했습니다.

○林鎮出 委員 굉장히 신뢰를 받으셨군요.

○證人 安熙正 예.

○林鎮出 委員 그러면 장수천 인수 시 주주였던 권양숙 씨의 지분은 누구한테 났지요?

○證人 安熙正 장수천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장수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林鎮出 委員 왜 내가 이걸 물어봤냐면, 아까 명륜동 집인가요, 그 처분 관계까지도 다 자세히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보까지 제공해 줄 정도면 굉장히 신뢰받는 관계인데……

○證人 安熙正 왜냐하면 96년도에 장수천 만들

고 97년도에 나오실 때까지 한 2년 동안 제가 돌아간 이수인 의원 비서관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盧武鉉 대통령께서 낙선하시고 나서 참모들이 다 호구지책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林鎮出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證人 安熙正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昌 林鎮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 때문에 중지를 해야 할 텐데 지금 하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오후에……

○朴炳錫 委員 당 회의도 있고요.

○委員長 李在昌 저희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와 있는데…… 지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후에 첫 번째로 하시지요.

○朴炳錫 委員 보통 우리가 1시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委員長 李在昌 아시는 바와 같이 하다 보면 1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朴炳錫 委員 2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럼 하세요.

○朴炳錫 委員 朴炳錫 위원입니다.

SK해운 비자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적발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저희가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朴炳錫 委員 SK글로벌 관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났지만 SK해운 관계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패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盧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盧武鉉 대통령께서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비서관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SK 비자금을 계기로 한국의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정경유착에 따른 먹이사슬, 부패사슬이 이제 끊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부터 우리나라 부패의 가장 근

원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는 규제를 먹고 자랍니다. 골프장 하나 짓는 데 도장이 780개가 필요한 나라에선 부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부패지수가 10단계나 내려가서 50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SK해운 비자금 사태가 바로 금감원에서 적발한 것이 촉발됐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임기를 4년 반이나 남긴 대통령께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 계기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한국에 더 이상 부패가 없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요.

앞으로 금감원도 철저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차제에 정치권도 불체포특권이란 장막에 숨어서 진실을 가리는 것에 소홀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감위원장께 묻습니다.

신문에서 흔히 얘기하는 썬앤문 부정 대출 사건이 있습니다. 썬앤문그룹의 김성래 부회장이란 사람이 보나그룹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보나그룹 김성래 회장의 대출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성래라는 사람이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을 위조해서 무려 120억의 부정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정 대출을 받는 과정이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 소위 대출에 필요한 기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이 당시의 농협 원효로지점의 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부정대출 취급 사건에 있어서 김성래 씨가 위조된 법인 인감,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사인을 위조한 사실이 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위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39건에 120억을 대출해 갔는데, 이게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부정대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만 정상적인 것이고 37건을 무더기 위조했는데 은행은 대출을 먼저 해 주고 대출이 끝난 뒤에 확인작업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따르는 겁니다.

과연 은행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확인의 미숙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

는데 금감원에서 이것을 조사 중에 있으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 관계 검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朴炳錫 委員 예.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은행검사2국장 金大平입니다.

농협중앙회 사기대출 사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되어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에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당해 기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어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 처리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炳錫 委員 농협에서는 이 부정 대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농협에서는 관련자 전원을 면직 조치하고 농협이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朴炳錫 委員 이 골프회원권 담보 취득 승인이란 것은 2002년 11월 5일이지요?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예, 그렇습니다.

○朴炳錫 委員 2002년 11월 5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점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지점장은 면직된 상태로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데 120억을 대출하면서 지점장의 승인 없이 내주었을 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120억의 부정대출 중에서 정상적 대출 5억 그리고 각종 담보를 빼면 순손실액이 103억으로 추정되지요?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지금 추정 손실액이 103억 정도입니다.

○朴炳錫 委員 선의로 해석할 때 사기에 걸려서 103억의 손실을 입힌 지점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지금 저희들 검사 과정에서 지점장의 사적 금전 대차행위도 발견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찰에 통보

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 자체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금감원에서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무리지를 예정입니까?

○金融監督院銀行檢査2局長 金大平 지금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인감, 무려 39명에 달하는 서류의 위조 그것을 아무 확인도 없이 금융기관에서 120억씩 내어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일부 행원들의 도덕불감증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프로의식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금감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본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의를 하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朴炳錫 委員 이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자뿐만 아니라 기관에 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미 농협이 면직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朴炳錫 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금 이러한 부정 대출, 사기 대출이 없도록 금감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계신지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는 항상 그런 면에서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일선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炳錫 委員 다음에는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해 주도록 3일 인가를 내 주셨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보험료의 인상 절차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저희가 수리한 것입니다.

○朴炳錫 委員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인상이 안 됩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그러면 하여튼 평균 3.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5% 오르는데 생보사도 같은 상황이지만 특히 손보사의 경우에 사업비 중에서 일반관리비 즉, 보험사 운영과 관련된 여러 경비가 급증하고 있다, 즉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올리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경비 절감이라든가 원가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선 경영 효율화 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손보사의 경우에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운영경비의 비중이 47%입니다. 이에 비해서 생보사는 24.7%이니 손보사가 생보사의 2배의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생보와 손보는 그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손보사는 생보사가 갖지 않은 보상담당 직원을 따로 두어야 되고 또 손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비용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생보사보다는 손보사의 경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려 47%의 일반관리비를 쓴다는 것은 자구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논쟁되었던 매집형 대리점 중간 대리점들이 모아 가지고 손해보험회사에 넘김으로써 고율의 수수료를 받던 것이 이제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특히 온라인 보험이 늘면서 손보사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경비의 비중이 47%씩이나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보사들이 경영효율화를 제대로 기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炳錫 委員** 이 문제는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전 국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수익을 적절히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기업의 본래 목적이겠지만 자동차 보험만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경영의 효율을 기하지 않은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경비를 원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즉, 고객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가, 낭비적 요소가 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격경쟁이 시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경영합리화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은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炳錫 委員** 손보사의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알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또 하나는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인데요, 증시 불공정거래 10건 중에 4건이 회사 관련자예요. 회사 내부자들이 정보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거나 삼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투자자들 특히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특히 무상증자와 관련된 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즉 대표나 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하루 동안 매매 정지를 하는 조치가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주주하고 대표뿐이나, 그 회사의 임원이나 담당직원까지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 즉,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 또 이것을 코스닥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증권거래소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금감위원장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먼저 말씀하신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 빈발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주는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대주주 외에 최소한 임원들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청으로 고발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취급했느냐, 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이것을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이 291명을 검찰에 이첩했는데 지금 판결이 난 사람이 245명입니다. 그런데 약식기소가 93명, 37%이고 실형 선고는 9.4%, 벌금만 부과된 것은 56%예요. 그런데 벌금이 부과된 게 부당이득액의 11%밖에 안 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해서 내부정보를 빼 가지고 주식을 먼저 사서 막대한 차액 100억을 얻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11억만 벌금 내라', 즉 89억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부정보를 빼내 가지고 하는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습니까?

또 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한번 제재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한번 일으키는 재범비율도 14%나 됩니다. 즉 '내가 내부정보 빼서 걸려 봤자 부당한 이득 취한 것의 11%만 내고 89%는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를 흐트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후에 대법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법률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어서 자료를 달라는 의견이 왔는데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위원장께서 법원과 관련 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협의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아까 저희가 검찰에 통보한 조치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검찰의 조치 내용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태도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불공정거래를 위한 금융조사부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게임의 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 문제에 좀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6분입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在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李性憲 위원 질의 및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한나라당 李性憲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 대투·한투 문제와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 번째 정책자료집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자료에 추가해서 다시 일곱 번째 자료집을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99년 12월 3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회의록을 여기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적자금을 투입받으면서 이사간에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또 양심의 소리도 있고,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리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고민과 열정들이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하나로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MOU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반대하는 논리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에서 MOU를 맺지 않으면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하에서 사외이사의 정당한 주장이 일언지하에 묵살된 상태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MOU를 맺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실제로 MOU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기관으로서 또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97년 외환 위기 이후 金大中 정부에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하겠다는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는 금융권 국제권고기준인 BIS 비율이 8%를 상회해서 10%까지 달하는 점

또 30대 그룹에 있어서 과거 한 400%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130%대로 떨어진 점 또 사외이사제도 도입이라든지 조직권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 부분도 상당히 나아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의 누적 잔액도 492억 달러에 달해 상당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평가의 다른 이면에서의 5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적자금, 즉 161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권 구조조정과 기업 환경을 바꾸는 역할은 상당 부분에서 성과를 낸 반면, 정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정부부채 규모는, 97년에 72조 원으로 GDP의 16.2%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총 236조 1000억 원으로 총 GDP의 39.6%로 증가해서 5년 만에 국가부채가 3배나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국감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고, 가계 부문에 있어서 부채가 늘어난 측면을 보게 되면 기업과 금융권 내부에서의 구조조정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중심이 이동되어 원점을 걸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서 금융권 구조조정 부분과 기업 부실 정리 부분에 있어서의 공만 지나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국 정부부채도 국민이 세금을 내서 갚게 되어 있고 또 가계부채도 일반 개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점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金振杓 부총리께서 국회 재경위에서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한 과표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이나 2005년에 과표를 올릴 뜻을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도 투기과열지구의 은행 점포들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초과해 대출해 주고 있는지에 대

해서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지난번에 카드사 부실이 심화되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현금서비스 한도를 50%로 맞추도록 하고, 돌려막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환·한미·대구·부산 은행 등 8개 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0조 280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19개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규모 134조 8000억의 22%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처럼 개별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담보대출 비율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은행들 간 가계대출 경쟁이 극심했던 탓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여신 운용에 있어서 과거의 행태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업금융이 여러 가지 축소 내지는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계에 대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李性憲 委員** 만약의 경우 부총리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일 경우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에 대해서 가급적 제약이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 마는 위낙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전 국토로 볼 때는 상당히 한정적인 강남지역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입니다.

○**李性憲 委員**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인

해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또다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던 은행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의미에서도 다소 담보대출 비율을 낮게 하는 것도 금융기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11조 322억의 만기가 내년부터 돌아온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꼭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대책 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 정도 낮춘다면 은행권만 놓고 볼 때 약 26조 원 정도가 급격한 상환 압박을 받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또 투기지역의 경우는 약 6조 원 정도를 조기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박이 만들어 내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생각해 볼 때 과거 현금카드 서비스 부대비율 조정과 관련해서 야기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유념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새로운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 카드 현금서비스와 관련해서 생겼던 예를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다음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은 영업실적이 나빠지자 올 들어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크게 올린 데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3~0.6%까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신설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일부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지난 8월 말 현재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11%에 이르고 있고, 그 규모는 약 8조 6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들어 카드사들은 리스크 때문에 높은 이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시다라는 실제로 정책적인 실패라든가 고객 확보할 때 카드를 무차별하게 만들어 주어서 생긴 문제를 카드 비용을 잘 내는 우량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카드사들이 취급수수료를 신설했는데 그 근거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요율이나 레이트에 대한 것은 당국에서 규제하는 바가 없습니다. 마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대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李性憲 委員**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면 정확히 조사해서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니까 ‘할부수수료의 총액에는 금리, 신용조사비, 사무관리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에 관한 수수료로서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현금서비스 이자율로 하지 않고 수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말하는 취급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0.3~0.6%까지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중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조사해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아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공시분석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2002년도 상장법인 614개사에 대한 34개 회계법인의 감사와 비감사 용역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들은 이들 회계법인에게 2002년에 회계감사 용역비로 565억 8657만 원을 지출했고 컨설팅비 등 비감사 용역비로 249억 8592억 원을 지출하여 총 815억 7249만 원의 용역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회계법인들이 수익을 올린 비감사 용역비용이 총 용역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삼일이 343억 874만 원으로 42.06%, 안진이 11.74%, 안건이 8.98%, 삼정이 8.59%, 하나가 6.33%, 영화가 4.96% 등 34개 회계법인 중 이들 6개 회계법인이 674억 1526만 원으로 전체 금액

의 8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컨설팅비 등 비감사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의 경우는 비감사 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3.4%인 148억 7336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회계법인들이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감사 분야를 통해 수익을 보충하도록 해서 감사에서 봐주거나, 감사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감사 대상회사로부터 컨설팅비 등 비감사 용역 부문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유착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계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회계감사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李性憲 委員** 물론 낮아지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당한 가격보다 덤핑으로 들어갈 때는 그만큼 감사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회사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업계 내부에서는 덤핑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또 실제로 지난 IMF 이후에 대우·현대·SK그룹 등 큰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보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한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1개 회계법인이 계속 감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2개 회계법인이 각각 감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크로스체크 방식의 회계감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취지의 내용이 이미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李性憲 委員** 다음에는 청년 실업대책과 신용

불량자 해소대책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李性憲 委員**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8%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20대와 30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말 전체 신용불량자 246만 명 중 20대가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0대의 경우도 신용불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9%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4분기부터 청년실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동시에 신용불량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실업 대책으로 6805억 6200만 원을 책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예산조차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방식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대책만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와 더불어서 청년 신용불량자 해소문제를 같이 묶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금융감독원에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李性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滿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滿堤 委員** 金滿堤 위원입니다.

그동안 金振杓 부총리가 획기적인 주택 안정대책을 내놓는다고 요란을 떨더니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또 건교부장관까지 덤벼들어서 용자비율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위원장께 우리나라의 은행이 전부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야 되겠

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관치로 ‘이래라, 저래라’ 옛날처럼 마음대로 할 바에야 언제 금융자유화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용자비율을 40%로 다 낮추면 문제가 생기겠으니까 강남만 40%로 하겠다는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가 급하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위원장은 경제전문가이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경제원론의 A, B, C가 무엇입니까? 강남이라고 치면 공급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값만 자꾸 올라갑니다. 공급은 늘 수가 없지요.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경제학의 A, B, C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릴 방법이 무엇이나? 말하자면 대체공급을 해야 되는데 판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다 강남을 자꾸 넓혀서 대체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서 과세를 하면 효과가 조금 있겠지요.

그런데 마치 단기적으로 중과세하면 투기가 가라앉을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을 보면 정부 내에 경제학의 A, B, C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 4월 20일부터 그저께까지 발표된 여러 번의 부동산이라기보다 주로 주택인 아파트 대책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세 과세를 누가 합니까? 지방정부가 합니까. 강남구청장은 선거로 된 사람인데 대통령이 뭐라 해도 재산세에 관한 한 자기가 결정하지 자기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겠습니까? 또 강남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로 해 가지고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 내라고 하면 내가 구청장이 되어도 ‘나는 그렇게 못 하겠소’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교육감은 어떻습니까? 부총리라는 사람이 심심하면 한번씩 자율학교다, 특목학교다 발표하지만 그것이 전부 교육감 소관인데 교육감이 말을 들어야 하지요.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교육은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뒷받침을 해 주고 있으니 될 턱이 없지요.

또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판교에 학원 이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하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발표만 자꾸 해서 마치 되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될 것을 다 발표하고 있

어요. 어제 발표한 담보대출 비율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일은행 같은 데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들어 줍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金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신에 관해서 당국이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거품이 꺼질 때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나 담보비율 문제도 있고 해서 특정지역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한시적이나마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金滿堤 委員 그것은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는 논리이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 ‘비율을 40%로 낮춰서 강남지역만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부총리의 월권행위입니다. 관치금융의 표본이지.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교육감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가능하지요. 금감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하고 같이 은행을 불러서 ‘지금 강남지역의 투기가 이러니까 거기의 용자는 좀 자체해 달라, 대국적인 견해에서 은행에서 협조를 해 주시오’ 이 정도로 끝나야지 무슨 비율까지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일내고……

아까 李性憲 위원 질의에서도, 불법 대출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뭐가 불법 대출입니까? 무슨 고리 금융으로 받아먹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불법은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불만스러운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호도한다고요.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차제에 그야말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콜금리가 3.82%로 우리나라 사상 최저 수준의 콜금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지요. 왜냐하면 명목금리가 4~5% 되는 나라쯤 되려면 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거나, 또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나라들이예요. 일본 대만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물가가

3.5%씩 오르는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금리를 4~5%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부터 문제가 많았다……

(李在昌 위원장, 嚴虎聲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생긴 겁니다. 작년에 금융정책의 방만한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겼던 것이 거든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꾸 강남만 얘기하는데 강북도 다 몇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심지어 대구도 몇천만 원씩 다 올랐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은 훨씬 더, 2000~3000만 원에 강남은 4~5억씩 오르고 큰 것은 10억 오르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절대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되더라도 이미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과열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몇 % 자라면 될 합니까? 그 사이에 계층 간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내가 근로자라도 자고 나니까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이러면 왜 일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요새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셋 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 잡으려고 목표도 설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최우선순위를 애셋 인플레이션 잡는 데에 두어야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1, 2%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줄 모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잘해야 1년에 2000~3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고 나니까 4000~5000만 원 올라가 버리고, 몇억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를 정부가 방치해 두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자명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올려 가지고 이 거품을 막아 내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지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셋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봤지 않습니까?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일 때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품이 다 일고 난 뒤에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씩 내려가 버

렸지. 우리도 꼭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차츰 총재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거품이 한참 일게 기다렸다가 내년쯤 금리를 올려 가지고 아주 폴씩……

그래서 이제는 카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겁니다. 금리도 올라 버렸으니까 다 못 갚고 말이지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을 못 합니까?

사석에서 위원장하고 한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7~8%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1인당 GNP 1만 불도 안 되는 주체에 이런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 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이 되어 버렸지요. 심지어 골프회원권까지 난리를 내고 있고, 다 부동산으로 선호가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쪽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金振杓 부총리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뒤야 할 것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적자를 좀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늘려 주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금융정책으로 경기 투자를 진작할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예산에다가 연구 지원도 할 수 있고-인프라 이외의 얘기입니다-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재정 적자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도로 회복됩니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金 부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세를 못 내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생기고 나서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니까 盧武鉉 대통령이 ‘그것은 대기업을 봐주는 거니까 안 된다’, ‘이번에는 무슨 논리냐’ ‘법인세 세액 감소가 8800억 가까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내리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경제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팀이 있는 한은 혼한 말로 짝수 노랗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왜냐하면 우선순위도 모르고 뭐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보십시오. 위원장도 관계됐지만 사전

에 카드채 완화하는 것이 있었겠지. 그러더니 어제는 또 엉뚱한 것을 들이대 놓고, 그것도 몇 달씩 실컷 우려먹은 것과 비슷한 것을 또 갖다 대 놓고는 마치 주택 안정대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니 참 딱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금감위원장이 금융분야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기를 싫으니까 각종 규제를 쌓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칙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내년에 가서 금리를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빚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더욱더 클 것이고 말이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금감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나 이런 데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이라는 것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나도 강남에 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이 사는 그 동네만 가면 공립학교도 좋아집니다. 왜냐? 비슷한 애들이 모여 사니까.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평준화 교육정책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대통령부터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했겠지. 돈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비슷하게 교육받아야 된다는 논리 아니겠어요? 머리 나쁜 놈도 좋은 놈도 대충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지금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까지도,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늘리고 있고 안보, 외교, 교육, 경제,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오는 게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니까 평준화 문제로 해결한다고 특목 고등학교 몇 개 한다고 부동산투기 잡힐 것 같아 봐, 얼마나 쉽고 좋겠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알 만하면 그런 데에서 얘기 좀 하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滿堤 委員 지금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느라 다 바쁘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중산층 아줌마들이나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소. 자고 나면 사기가 팍 죽어 버린다니까. 강북에 있으면서 돈 좀 모아서 강남으

로 가 볼까 하던 사람도 주저앉아 버리고, 또 새로 집 사겠다는 사람도 몇천만 원이 올라가는 바람에 폭 주저앉고. 10년 만에 집 장만하겠다는 사람이 20년이 걸리고, 강남은 평생 가도 안 되게 생겼고, 이래 가지고 경제성장을 한들 뭘 하겠어요?

1년 정도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자산 인플레이를 잡는 데에 뒤편에 둥니다. 이것은 옛날의 부동산 투기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몇몇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투기 한 것이고 이것은 수백만 세대가 다 인벌브(involve)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붕괴가 된다는지, 올라갔을 때의 폐해라는지, 사회 갈등이 팽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금감위원장한테 협조를 요청해 올 것 아니요? 금융 쪽에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왜 그게 부당한가 하는 논리를 전개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도 강북에도 용자비용을 낮춰서 대출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집값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강북에 못 사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嚴虎聲 金滿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允式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金滿堤 위원님께서 2분을 남기셨기 때문에 2분을 추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金允式 委員 경기도 용인을 출신 金允式 위원입니다.

지난주 연속 3일 동안 금감위, 금감원이 국감 받으시고, 오늘 또 최종 종합감사를 받는 李晶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3일 동안 금감위 국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의 독자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한 책임경영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파이낸셜 어카운터빌리티(Financial Accountability)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160조나 투입해서 금융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아직도 시작단

계에 있고, 신용카드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가 및 신용불량자로 인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도 금번 국감에서 금융권의 채부실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우선 상반기의 경영실적이 외관상으로는 흑자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적에 사실상 적자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나마 부동산 버블이 가라앉을 경우 일본과 같은 금융권 부실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金滿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버블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지만 그나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조정되고 한편 주택 경기마저 죽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비시장경제적인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통해 주택담보비율을 충격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구상하고 있고, 또 1가구 1주택을 비롯해서 보유세를 9배나 올릴 경우에 충격이 가해질 것은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인위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감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조치가 금융권에 미칠 임팩트(impact)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정말 심각하게 건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재정부와 별도로 대통령께 직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부총리는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한 후에 이런 조치가 나오는데 금감위원장도 독대하셔서……

이것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취해야지 충격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 위원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충격이 필요했던 시점은 작년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잡는 방법으로서 주택선물거래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정부위에서 선물거래소 이사장과도 개인적으로 상의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강남에서 과열되는 것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선 공급 사이드를 봐도 분당과 또 연접된 용인, 수지, 구성, 기흥 해서 10만 세대 이상이 최근

에 건설됐습니다마는 강남은 분양가가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는 600만 원이 평균입니다.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고, 또한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로 보더라도 신도시라든지 땅을 조성하는 서플라이어(supplier)는 하나입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독점수용권을 가지고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이것은 참으로 악법이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경쟁체제로…… 민간부문에서도 얼마든지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아파트도 민간부문에서 건설하는 것이 훨씬 프리미엄이 붙고 선호합니다.

이렇다면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조닝(zoning)만 해 주고 주택 건설이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다 판교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집중될 것이 불을 보듯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민간부문까지 상시 건설이 가능한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금감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감위 자리이고, 또 부동산 버블을 인위적인 조치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가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금융권 부실채권이 요주의 여신을 포함하고 증권·투신을 제외해도 최소한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朴鍾根 위원님께서도 재경위 감사에서 기왕에 부실기업 정리에 투입된 돈이 32조라는 지적을 했는데 금융권이 이런 잠재부실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요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입장에서 최근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은행권에 잔고조회를 할 경우 회계법인은 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CRT 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하고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조회서 발급은 이번 SK사건에서 자료를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이미 2001년, 2002년에 은행조회 발급 시 주의사항을 너무나 자세하게 예시하면서 했습니다. 참으로 금감원에서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는 잘 하셨는데 구체적인 해당 은행에서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보내야 할 것을 오히려 피감받는 기업으로 보낸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던 회계법인도 'CRT는 회계감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다, 외국도 그런 게 없다'는 참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외부로부터 금융권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후에도 지도공문을 또다시 발송해서 은행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잡입 처리하여 상반기에 750억을 은행 이익으로 잡았던 것은 참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휴면계좌는 이미 잡좌로 분리되어서 본인이 통장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개설은행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갔다가 오면 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알고 휴면계좌로 처리되는,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서면통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시간만 기다려서 오히려 잡입으로 잡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은행연합을 통해서 홍보했고, 또 해당 소액예금계좌 주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많이 왔고, '이제 격지에 있는 개설은행에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고맙다'는 인터넷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개설은행에 가지 않아도 타 은행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면 처리된 것은 은행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외국과 같이 국고에 귀속시켜서 복지예산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금감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은행이 기업자금 대출 중 '요주의'로 분류된 여신이 경험손실률은 7.3%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은행권의 최저적립률을 2%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여신

의 경험손실률도 73.4%인데 최저적립률을 50%로 지도하고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최소한 과거 경험손실률 수준으로 강화하여 은행이 재차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방안을 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주거래은행 채권단 간사은행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번 국감을 통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다른 예와는 다르게 우선 기업을 경영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을 해서 부채를 낮추는 방법이 분식의 통상 예였는데 SK글로벌의 경우에는 무려 5000억에 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비자금, 정치자금화 되고 있고, 총액출자 25% 제한규정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열사 주식 4000억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파킹시켜 놓음으로써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풀리지 않더라도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에 대비하는 조치는 참으로 부도덕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도 과납한 세금 460억을 환급받겠다는 소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채권은행에서 무려 2조 3000억 이상을 출자전환, 4조 이상이 들어가는 회생조치를 해야 되는지 금감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8개 저축은행 중 최근 4년 동안 종합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저축은행이 약 75개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든지 연체율이 2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조흥은행 파업 때 금감원에서 검사역 등을 긴급 투입하여 전산대체인력을 통해서 기능을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흥은행 직원이 없이는 전산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감독기관의 위기관리능력에도 역시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은행의 전산망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법으로 필수공익요원으로 법제화하여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필수공익요원이 철도요원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은행의 전산망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요원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감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 계열회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론스타와 같이 전문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의 재무건정성을 강화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론스타가 국내의 구조조정, 부동산이라든지 건설회사 이러한 것을 인수해서 산업자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금융계열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내부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에 국내기업에는 막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열사에 대한 용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정이 있어서 차단되리라고 봅니다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획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벽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금감원에서 그 점의 감독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금감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여기에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로 해서 대형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형화된 금융지주 그룹회사들은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이 다양화하고 대형화됨으로써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의 분산 등에 따른 리스크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반 은행보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이 더 상시화되고 또 한국은행, 예보공사 등과 공동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嚴虎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在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在煥 委員 민주당의 趙在煥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서민경제 쪽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민을 보

호할 수 있는 정책이 뿌리가 내려서 건전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했을 당시 신용금고를 통해서 머니게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고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건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또한 염려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위원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2저축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을 나가서 개인 불법 대출의 의혹이 있다”라고 했더니 지극히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趙在煥 委員 않았느냐가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정상대출이었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 그래서 마지막 종합감사 때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국장 두 분이 오시고 또 실무자도 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현재 감사보고서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실무자 인정하시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비은행검사국장 俞柄泰입니다.

○趙在煥 委員 정상대출입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정상대출입니다.

○趙在煥 委員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그동안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자의 입장에 있는 I사 사람들이 금감원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또 제2금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그 주변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타 저축은행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금감원에서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국회의원이 제출 요청한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趙在煥 委員 아는 바가 없어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趙在煥 委員 묻겠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것은 ‘결과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한계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눈먼 봉사가 가서 검사한 게 아니니까…… 6일 동안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만 보고 와서 정상대출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날 진승현 게이트라든지 이용호라든지 또 정연주 이런 게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감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6일 동안 가서 서류만 보고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십시오.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관계 소명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정당한 대출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이상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금감원은 2002년도 10월 검사를 나갔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은 적발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때는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가 적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안 되었어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趙在煥 委員 그때 검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때는 아마 출자자 대출이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검사는 누가 나갔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 검사

역이 나갔습니다.

○趙在煥 委員 다섯 가지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어요? 11월도 가고 적발사항이 다섯 가지 아니었어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적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을 적발했다고 봐지는데 어디에다가 얼마를 대출한 것이 여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대출이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IB 홀딩스에 대하여 775억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775억이예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7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한도 초과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동일인 한도초과가 IB 홀딩스에서 750억 정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염려해서 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동 저축은행에서 동일인 한도 대출을 전부 회수했으니……

○趙在煥 委員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기관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임권고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문책경고나 임원 문책을 통해서 초과대출이 해소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것은 언제 해소가 되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것은 금년 6월에 상가가 분양됨으로써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로 동 대출을 전부 상환받았습니다.

○趙在煥 委員 금년 7월에 검사를 했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래서 동일인 초과대출 회수를 어떻게 했나 검사했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회수 재원의 출처를 어디

라고 파악했나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회수 재원은 바로 중도금 대출을 지급함으로써 분양자는 IB 홀딩스에 입금을 하고 입금된 재원은 저축은행으로 바로 대체입금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외부유출된 것은 아닙니다.

○趙在煥 委員 대출금 회수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 나가서 적발할 당시 제2저축은행의 BIS 기준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건전성 상태는 어땠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들이 검사를 나갔을 때에는……

○趙在煥 委員 2002년 얘기입니다.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2002년에는 6.67%였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렇게 많았어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금년 7월 검사 당시 BIS 비율과 당기순이익 규모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금년에 갔을 때에는 BIS 비율이 7.05이고 당기순이익은 10억이 났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대단히 양호한 은행이네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크게 양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때 적정 BIS 비율 기준이 얼마인데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들 지도 기준이 4%입니다.

○趙在煥 委員 그런데 6.7%이면 대단히 훌륭히 영업한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소액대출 연체로 인한 부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소액대출이 약 40% 가까웠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게 대단히 양호한 편이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거기는 해소를 했어야 할

텐데 6월에 보니까 부실을 메꾸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부실은 상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래서 메꿀 수 있었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분양을 해서 개인 대출을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서 부실을 메꾸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우선 상가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IB 홀딩스에 대한 대출금에 따른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제2저축은행이 I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저희들이 검사 결과 알았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런데 아까 건전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봅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동 저축은행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I사는 시중 상가 인수 자금으로 690억 원을 제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18%로 빌리면서 6개월 후에 상가분양이 될 경우에 그 이익금의 25%를 주기로 이면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이면계약 사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趙在煥 委員 알 수 없었어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趙在煥 委員 그러면 상가분양이 2월에 다 끝나서 동일한 여신한도 초과부분에 대해서 다 회수를 했지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그렇습니다.

○趙在煥 委員 거기에서 이면계약 25%에 해당되는 390억 원을, 6개월 만에 690억 원을 대출한 대가로 장사를 해서 남은 금액까지 해서 390억 원이 제2저축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390억 원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예, 상당금

액의 이자와 취급 수수료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I사와 제2저축은행 간의 관계가 뭐길래, 아까 정당한 대출이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분양권 대출, 개인 대출로 이루어졌으면 I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이것은 저희들이 7월에 가서 검사한 결과 나타난 사항입니다.

○趙在煥 委員 검사보고서에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불법대출 취급 사실이 없으면……

○趙在煥 委員 불법대출 취급 사실이 있고 없고 간에 많은 머니게임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가 속출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금융 관계의 허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까지 안 한 금융감독원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수박 겉 핥기식으로 검사하는 것이 무슨 검사입니까?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제2저축은행 금액 중에서 390억 원을 장부상으로 정리했고그래서 부실을 해소했고, 그때 당시 BIS 비율을 6.07%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높이는 데 그 돈이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1400여 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일시에 분양되었습니다. 735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대출금 인출도 없이 분양계획서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약 1400억 정도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650억 원을 더 올려서 개인 분양대출금으로 둔갑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金融監督院非銀行檢查局長 俞柄泰 J저축은행에서 나간 대출은 884억 원입니다.

○趙在煥 委員 그런데 이런 얘기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6일 동안이나 검사하면서 이런 것을 누락한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 대출사건은 정상 대출을 가장하고 위장해서 자금 간 이동도 없이 처리한 고도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매매를 통해서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수천만 원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터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터졌을 경우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분쟁 내지는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한테 많이, J저축은행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I사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다리를 놓아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J저축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I사가 끼여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동업을 통해서, 동일인 출자대출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산하고, 1400개 점포 중 735명이나 명의를 대여받아 처리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게이트 사건을 통해 정치권으로 돈이 흘러갔다 어떻다 해 가지고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사건을 방치해 두었을 경우 많이 회유 당하고 중간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좀 봐 달라고 몇 푼 갖다 주고 해 가지고 사기사건인데 엉뚱한 데로 튀어 가지고 의혹이 또 부풀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다 들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2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을 해서 12월까지 완전하게 원래 계획대로 분양이 마무리되면 깨끗이 끝날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분양된 것 중 개인 대출이 14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취득세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가능성을 보고 내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또 80%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수습해야 할 것이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은 명의를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감도장 빌려 주고 대출 일으킨 것인데 에이전트 몇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하듯이 피라미드식으로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다시 사 주든지 권리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만 대출받고 30%는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임대료를 통해서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돈은 10원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자도 다 물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출방법인지, 굿머니사건도 비슷합니다. 굿머니사건에서 없어진 돈들이 모모 정치인들에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390억이라는 돈이 장부로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로 690억 받아서 6개월 만에 이자까지 390억, 장사해서 남은 금액의 25%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동일인 출자대출을 피하기 위한 돈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분양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남은 이익금으로 만든 것인지, 분양금에서 이쪽 주머니에 넣은 돈 저쪽 주머니에서 빼고 해서 뜯어맞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감지하셔서 양기업체가 절대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용하게 마무리되어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86세대라는 젊은 사람들 기법이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데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카드사 적립률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한 결과 카드사 자신은 물론이고 카드채를 매입한 금융기관들마저 동반 부실에 빠질 우려가 생겼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을 넘어서 사회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정도까지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사전감독 강화 측면에서 2001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말까지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각종 지침과 대책안을 카드사에 통보함으로써 규제 수위가 점점 악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스물다섯 차례 조치가 있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趙在煥 委員**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카드사에 대

한 정부 규제가 스물다섯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법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카드사들은 규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매출액도 늘고 이익도 사상 최대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연체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매출도 줄고 적자도 발생하고 해서 연체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당금을 높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현금서비스 비율을 50 대 50으로 줄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아무래도 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면 수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趙在煥 委員**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은 아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경기 침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趙在煥 委員** 카드사 충당금이 2002년 중 세 차례나 변경되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카드사들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자기자본비율, 연체비율 등 감독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결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각된 자산을 팔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지금 현재 카드사의 상각채권은 주로 어디서 회수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매각·낙찰되고 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전문 채권추심회사들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스타와 자산관리공사에서 12%~15%로 사고 있잖아요? 외국 투자은행들이 15%로 매수했는데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15%로 매수해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당초에는 그랬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이율로는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趙在煥 委員 카드채 부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0%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충당금 적립기준이 너무 과도해서 온 결과가 아닌가, 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털고 결국은 적지만 단 5%, 10%라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충당금을 쌓는 형태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충당금은 사내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내에 유보해서 어려울 때 대비하는 것도……

○趙在煥 委員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카드채를 15%에 정리해서 충당금을 쌓든 어떻든 결국 카드 이용자들한테 돈 받아 내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에라도 억지로 팔아 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단 얼마라도 건져서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嚴虎聲 간사, 李在昌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이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在煥 委員 그러면 카드사의 충당금 기준을 좀 낮추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연체율 문제, 현금서비스 비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趙在煥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趙在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安熙正 증인이 아침부터 출석해 있는데 그간 安熙正 증인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분을 알아보니까 金文洙 위원님이 보충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安大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金文洙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安熙正 증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安大崙 委員 원칙은 아니지만 양해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감사합니다.

그러면 金文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安熙正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盧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

수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누구누구가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證人 安熙正 양해하신다면 제가 했던 개인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밝혀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盧武鉉 대통령을 보고 투자하셨든 아니면 제가 중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투자하셨든 그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밝히면 그분들이 어떤 구설에 계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이미 시중에 그런 낭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실체를 빨리 밝혀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증인, 증언을 함에 있어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사실을 물을 경우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熙正 예, 잘 알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證人 安熙正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방금 위원장님이 주의를 드렸는데요?

○證人 安熙正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 답을 하겠는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신 분들의 선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선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다,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답변 거부하는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러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밝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현 정권의 장관급이라든지 대통령의 측근들과 현 정권의 실세, 소위 말하면 코드가 맞는 상당한 분들의 이름이 거명되

면서 얼마를 투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어 보았습니까, 들어 보았지요?

○證人 安熙正 여러 가지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들어 보았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런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단순 의혹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證人 安熙正 예를 들어서 장수천 초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제가 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판매회사인 오아시스위터를 운영했을 때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의혹이 어떻게 증폭되어서 서로 간의 공방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망신을 당하는지 잘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투자자들은 누가 얼마를 투자했다는 기장을 하지요?

○證人 安熙正 그 회사가 등록된 상장회사는 아니어서 대부분 오너인 제 개인의 인연관계로 제 개인 차입금으로 잡힙니다.

○金文洙 委員 차입과 투자는 다르겠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부채이고요.

○證人 安熙正 예, 투자로도 잡히고 오너인 개인 대주주의 개인 차입금으로 잡히고 다양한 형태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을 일체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까?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인이 증언하라고 촉구해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오아시스위터가 처음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출발했다가 2000년 9월 8일에 2억 4000만 원으로 증자되었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늘어났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그 1억 9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證人 安熙正 그것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추가로 투자받은 1억 9000만 원의 돈 또한 지금 재판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金文洙 委員 수사를 받았습니까?

○證人 安熙正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 委員 수사를 받았으니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언 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 하겠다고 증인이 처음 변호인을 대동해서 주장하고 나오시는 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證人 安熙正 아마 나중에 저희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 그 유·무죄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사실과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문제를 공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 委員 그것은 증인의 자기주장이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證人 安熙正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文洙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증인이 처음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더 안 다투겠는데 감옥에 가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분도 나와서 증인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증인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특권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비쳐진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못 밝히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차입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마는 매각할 때는 그것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맞겠지요?

○證人 安熙正 예, 매각대금으로 상환했습니다.

○金文洙 委員 모든 투자금액을 다 상환했습니까?

○證人 安熙正 아니지요. 회사가 망해서 판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못 갚지요.

○金文洙 委員 그런데 증인의 수사자료가 언론

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돈 중에 매각대금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2000년 11월 자치경영연구원에 넘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면 투자금과 차입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영연구원에 운영비로 먼저 넘겼다고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 연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각대금에서 장수천 주변의 체불임금이라든지 OEM 공장들에 대금을 지급했고 그러고서 제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업이 원래 재단법인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양숙 여사의 대출금이라든지 등등 제가 상환해야 될 돈이 많은데 연구소의 확대개편에 우선 급해서 1억여 원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金文洙 委員 2억 5000만 원은 사실이 아닌지는 것이지요?

○證人 安熙正 예, 그 당시 제가 장부를 가지고 기록해서 썼던 것이 아니어서 과정 과정에서 돈의 용처를 확인하다 보니 한 1억여 원을 쓴 것 같습니다.

○金文洙 委員 장부도 없고 투자든 차입이든 기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의 오아시스워터였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安熙正 작은 개인사업장 정도의 규모입니다.

○金文洙 委員 그래서 기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證人 安熙正 기장 관계는 저희 회계감사가 사실상 회계사무실과 같이 상의해서 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기장되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회사가 매각되고 나서 매각대금은 대주주인 제가 가지고 임의로 쓴 것입니다.

○金文洙 委員 이 회사가 크든 작든 추억이 왔다 갔다 하고……

○朴炳錫 委員 위원장님, 아까 36분 하셨고 지금도 10분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昌 알았습니다.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金文洙 委員 그래서 당시에 姜錦遠 회장은 오아시스워터를 매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팔려고 했는데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김효근 씨한테 투자 2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스텍창투에서 1억 9000만 원의 투자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매각할 회사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證人 安熙正 위원님, 그것은 장수천 이야기이고 판매회사인 오아시스워터를 만들면서 주변의 돈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원투자자들은 장수천을 매각하고 싶어했지요. 그런데 저는 판매회사를 만들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연구소의 재단기금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 오아시스워터를 설립하면서 이익금 전액을 나중에 연구소의 재단법인 기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당시 제가 대표이사 명의로 홍보물을 만들 때 이와 같은 취지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아니면 이따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중간에 하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1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5분만 더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昌 2분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委員 아까 매각해서 4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 3억을 주변 정리하는 데 썼다고 했는데 사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證人 安熙正 장수천이나 주변의 밀린 채무, 그리고 제가 오아시스워터를 거래하면서 밀렸던 채무 등 소소한 데입니다.

○金文洙 委員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됩니까?

○證人 安熙正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金文洙 委員 그리고 姜錦遠 회장의 창신섬유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지난 대선기간에도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證人 安熙正 이 주제가 저를 부르신 증인 신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金文洙 委員 관련은 제가 판단하니까 일단 답변하세요.

○證人 安熙正 저도 그것을 알아야 답을 드리는 데요.

○**金文洙 委員** 본인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證人 安熙正**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金文洙 委員** 뭐가 지나칩니까?

○**證人 安熙正** 대통령의 친인척 금융비리에 대해서 조사하시겠다고 해 놓고 어떤 금융비리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文洙 委員** 지난번 대통령 선거 도중에, 또는 그전에 창신섬유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安熙正** 부산에 들릴 때마다 가끔 한번씩 들립니다. 그런데 언제 방문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金文洙 委員** 작년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 간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證人 安熙正** 더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거기에서 노사모의 노란 목도리를 만드는 것은 아시지요?

○**證人 安熙正** 전혀 모릅니다.

○**金文洙 委員**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까?

○**證人 安熙正** 목도리는 집회유세 때 봤지만 창신섬유와의 관련성을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金文洙 委員**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요?

○**證人 安熙正** 예.

○**金文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金文洙 위원님의 보충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다른 위원님 중에 安熙正 증인에게 증인 신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安熙正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安熙正 증인은 집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장)

그럼 다음 安大崙 위원 질의하십시오.

○**安大崙 委員** 자유민주연합의 安大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 문제가 법과 정서를 구분해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9년간을 끌어 오면서도 어떠한 결론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

는 것은 단순히 몇몇 생보사의 문제가 아닌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장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사 상장 논란의 핵심은 생보사에게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상호회사’나 ‘주식회사’는 들어 봤어도 ‘상호회사 성격의 주식회사’라는 말은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상호회사적 성격’이란 것이 뭘 의미합니까?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법률에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보험회사의 상품이 계약자 배당상품을 취급했던 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安大崙 委員** 그러니까 정서적 해석이지요? 법률에는 없지요?

또한 상법상 상호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상호회사법인을 해산하고 법적 주인인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도 상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주식회사의 경우……

○**安大崙 委員** 법률상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법률적인……

○**安大崙 委員** 법률상 보상규정이 없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安大崙 委員** 그렇다면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회사에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배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동이 아니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께 과거의 여러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그 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여하튼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석

할 때 초법적이 아니냐, 정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일부에서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생보사들이 배당상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10위권 보험사로 배당상품을 많이 판매한 내이션 와이드 라이프(Nationwide Life)나 스테이트 팜 라이프(State Farm Life)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많은 생보사들이 배당상품을 판매했지만 현재 우리와 같은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묻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만 배당상품 판매가 문제되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배당상품 자체가 문제된다고보다는 1990년도에 생보사 자산 재평가를 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30%를 자본계정에다 계리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安大崙 委員** 배당상품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특징인데 배당상품이 상호회사에서 문제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배당상품이 그동안 많이 팔려 왔고, 지금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배당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온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安大崙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책임과 권리는 동일한 선상에 있으며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다거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생보사에게 상호회사적 성격을 부여하고 계약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공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생보사 구조조정 당시 국제나 고려 등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지만 계약자들은 보험금을 전액 보장받았습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일체 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면 구조조정 당시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 당시에는 계약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安大崙 委員** 잘못된 거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이 말씀을 구분해서 드려야겠는데……

○**安大崙 委員** 좌우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자체를 예외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90년의 조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安大崙 委員** 법률을 떠나서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최근 영국의 산업동향 분석기관인 데이터모니터는 “상장자본을 주주와 보험계약자 간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자유주의정책에 위배되며, 이것이 실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데이터모니터의 시각이 바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 문제를 인가나 정서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제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인 만큼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원칙적인 대답만 해주세요. 이미 잘못된 상황은 벌어져 있으니까. 법률이 있는 거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기본적으로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합니까라는 과거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安大崙 委員** 그러면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법이 있으나마나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뜻은 아닙니다.

○**安大崙 委員**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감위에서는 8월 25일 단일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 104만 명에 대해서 금융회사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특히 연체액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 명에 대해서 대환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신용 회복을 유도하며,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등의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수가 335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개인 신용 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15 대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졸속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회복 대상자의 선정이나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개별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과거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실채권 정비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가 나서서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81만 명’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경영 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원리금을 깎아 주라’고 금융기관에 강요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는 어린아이 팔 비틀어 과자 빼앗듯이 금융기관을 압박해서 신용불량자 숫자만 줄이겠다는 뜻이며 새로운 관치금융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글썄, 위원님이 표현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언제까지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미만 신용불량자가 한 금융기관에 80여만 명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이 노력하면 줄여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본 겁니다.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둘째로,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금융기관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에 속된 말로 ‘배 짜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외치다 보니까 개별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겨서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금융 부실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새로운 신용 경색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아까 “너무 심한 표현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게 잘못하면 바로 관치가 되는 현상이므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 참견을 많이 하면 이런 역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해 줘도 지적하시는 바로 모럴 해저드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 6~7개월 동안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와서는 도저히 대책이라고 안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 위원장, 趙在煥 간사와 사회교대)

○安大崙 委員 셋째로,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의 실효성 확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올 초 상임위에서 지적도 했었습니다.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하고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정적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종합적인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เครดิต 뷰로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신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앨 경우에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보다는 금융기관의 혼란과 신용 경색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 현상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개인신용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반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그리고 국민은행이 콜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 본 적은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국민은행이 지난 10월 6일에 ‘2~3년 내에 중국으로 콜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은 제조업의 국외 이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이번 발표는 서비스업도 탈 대한민국이라는 엑소더스(exodus)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게 시작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심정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세계화시대에 국경이 없어지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적이 필요치 않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리딩 뱅크라는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국민은행이 어떻게 이윤만을 위해서 인력, 고용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익적 임무를 저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일말의 분노도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지금의 선도 은행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국민은행은 주택은행하고 합병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은 아닙니다.

○**安大崙 委員**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합병했을 때 먼저 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은 상대적으로 우량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安大崙 委員** 여하튼 간에 국민과 국가의 희생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지금 본질을……

○**安大崙 委員** 본질상 그리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제가 보건대 은행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 산업이 해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합니다.

○**安大崙 委員** 하여튼 리딩 뱅크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은행인데, 이런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이고, 이러기 위해 여태까지 은행들을 합병하고 100조가 넘는 대형은행들을 만든 건데, 콜센터가 외국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은행들이 전부 뒤쫓아갈까 봐 걱정

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만일 중국으로 가는 경우 어떻게 검사나 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큰 은행들이 전산센터나 콜센터를 해외에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 뜻이 ‘생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토양이나 빠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은행마저 이렇게 될 때에는 경제적인 기초가 상당히 흔들리지 않는가?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마는 예컨대 은행으로 봐서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安大崙 委員** 10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어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인건비가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安大崙 委員**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의 자본 안정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은 47조 7000억이지요? 이 중에 28조 3000억은 기본자본이지만 40.6%인 19조 6000억은 보완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렇습니다.

○**安大崙 委員** 일반은행 자기자본 중의 보완자본 비중이 2001년 말 15조 2000억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2년 말에는 19조 원으로 되고 2003년 3월 현재에는 19조 2000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완자본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통상적인 자원 증대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安大崙 委員** 기본자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배당 외에 비용이 없지만 보완자본은 후순위채 누적배당형 우선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과 이자를 갚거나 높은 배당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완자본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들의 경쟁력 저하나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大崙 委員** 외국은행들의 보완자본이 20%에서 30%인 데 비해 우리 은행의 보완자본 비중은 너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은행의 자본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각 은행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증자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면 증자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安大崙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在煥** 安大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元吉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金元吉 委員** 나는 그냥 얘기하면 돼.

요즘 상당히, 특히 오늘 내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외적인 부분은 다 빼고라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 분식, SK 분식 거기다가 대통령이 중간에 재신임을 물겠다는 것이 국제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는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안화 절상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에 끌고 당기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버티 주던 수출산업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데 국제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는다고 하면 상당히 저는 위기라고 보는데 그것은 금감위원장이…… 장관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빼고.

나는 SK 분식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여기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것이 사실 현대 비자금 문제는 상당한 문제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그런가보다 하고 얼떨결에 넘어가는데, SK 비자금 문제, 더구나 분식은 심각한 것 아니예요. 한국의 5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이 어떨까 하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식은 유형이 있단 말이에

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도 옛날에 회사 사장할 때 분식 많이 해 봤어요. 그때는 다들 알지만 안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특히 단기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당해연도 적자를 내면 당장 은행 신용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이 한 사이클만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분식했다가 경기 회복되면 정리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은 일단 없다고 보고.

단지 분식의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회계 복식부기가 그런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는 분식하면 자산계정에서 어디어디 어떻게 하고, 부채계정은 뻔한 것이고. 이러면 대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는 것인데 이것이 실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SK는 내가 요전에 “그러면 이중장부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분식도 아니야.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차변, 대변의 이동 없이 부채계정을 쓱 빼 버린 거야. 별도 장부를 가진 거야. 그렇지 않아요?

○**金融監督委員會會計專門審議委員 黃仁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吉 委員** 이것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金融監督委員會會計專門審議委員 黃仁泰** 아닙니다. SK……

○**金元吉 委員** 이것은 전혀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 않아요?

○**金融監督委員會會計專門審議委員 黃仁泰** 예, 그렇습니다.

○**金元吉 委員** 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알아낼 수도 없지요. 쓱 빼 버렸으니까 아무리 들여다보고 분석해도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분식의 유형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회계법인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

위원장께, 금감원에서 요새 전산이 가능해서 상장등록업체 정도는 계정과목의 이상이동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궤도를 이탈하면 위닝을 주는 것을 구상했으면 어떨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金元吉 委員**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얘기지. 직접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외비로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 과도하게 늘었다든지, 재고물품이 과도하게 늘었다든지, 고정자산이 별로 투입되지 않을 상황인데 투입됐든지 죽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워닝을 미리 주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것이 알려지면 사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회계법인이 전혀 모르고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있거든요. 추세만 죽 그려 놓으면 나타납니다. 이상한 게 불쑥 튀어나오거든. 그러면 정상케도만 이탈한 것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전산화해서…… 요전에도 내가 얼른 그 얘기를 막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분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것은 아니고. SK는 특수한 사항, 은행의 부채계정을, 말하자면 자료를 위조한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위조지 뭐. 위조해 가지고 쑥 빼 버렸으니까 그것은 회계법인도 발견한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은 특수한 예고,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에 대해서 현대도 분석, SK도 분석 그것도 수천억…… 10억, 20억, 100억이면 이해가 가는데 수천억씩 분석을 했다고 하니 이런 회사를 누가 믿겠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 사는 사람이 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는 높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산화해서 이상 유형이 나타날 때 워닝이 되게 만들면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공표해도 좋고, 발표만 안 하면 되니까. 회계법인들도 알고 기업들도 알면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고자 하는 유혹에 덜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장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현대, SK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심각해.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이상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없으니까……

○**金元吉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재무제표 가지고 하면 되니까. 기업을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재무제표는 1년에 한번 내지……

○**金元吉 委員**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거야. 그것만 가지고 1년, 2년, 3년…… 무슨 얘기인지 알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트렌드가 나타나요. 그 정상케도를 이탈하는 것만 딱 집어내면,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부분만 실사해 버리면 대부분은 막아진다고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장 6개월 후 효과 전혀 없어요. 1년 후에도 없어. 한 5년 후에는 그것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金元吉 委員** 그래요. 이것이 반드시 분석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복식회계 아니에요. 차변이 움직이고 대변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SK는 대변 자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채계정에서 빼 버린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대개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 자산계정이 늘어날 때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맞춰서 늘어나는데 특수하게 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워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실제로 워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회계법인도 직접 실사 나가서 해 보면 분석은 막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전에 어느 기업체는 그때 내 일이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갔었는데, 기계가 1대 있는 것을 4대 있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데 많았어요.

그런데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적어도 5년 정도만…… 남 의심할 것 없이 공개된 재무제표만 그대로 걷어다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트렌드를 죽 그려 가면서 불쑥 일정한 선이 나오면 워닝되게 만들어 주면……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되면 끝나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실사해 보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분석회계를 막아 주어야

지 ‘분식회계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새 주식 사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주식을 사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대부업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어서 나도 못 외우겠는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채를 양성화한 것이란 말이지요. 일본의 대금업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 문제가 나,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시·도지사 인허가 사항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갖기 어렵고 또 현실을 다 알겠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빠지기 시작하면 돈 없는 순서대로 나빠져요. 좋아지기 시작하면 돈 있는 순서대로 좋아지기 시작한다고요. 바뀌 얘기하면 경기침체 기간이 오래 가면 돈 없는 사람의 고통은 가중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IMF 때에는 나빠지는 시간이 짧았어요. 확 나빠지니까 없는 사람이 나빠지고 중간 사람들은 버텼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였던 그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지부진한 경기침체가 오래 가니까 회복할 기간을 잃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데는 심각한 모양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극빈층을 보호하는 게 130만 정도인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차빈곤층 그러니까 20% 정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 4인 가족 기준으로 102만 원 이하는 극빈층이고 102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는 320만이 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극빈층은 똑같아요. 국가가 주는 게 일정하니까요. 그것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 뿐이지만 상황은 똑같은데 차상위 계층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공적부조가 없단 말이에요. 병원도 자기 돈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니까 소위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게 800만이나 1000만이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금융에서는 아시다시피 사금융의 피해가 안 늘어날 수가 없

어요. 이유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소관 아니라고 대부업을 그냥 내맡겨 두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리로 다 몰린 거예요. 카드로도 줄여 주고 은행의 개인대출도 줄이고 말하자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좀 열악한 사람들에 부여되던 자금원이 다 단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할 수 없이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감위 관할도 아닐뿐더러 또 하나는 형편없는 불법·악질 대부업 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적당히 운영하면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제도권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데 실패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저인 예가, 비서관한테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받아 보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감위원장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장관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권과 비제도권은 분명히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기꾼 도둑놈 나쁜놈은 방법이 없어요. 형법으로 다스려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기관까지도 그런 유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 간에 협조를 해서, 이것은 워낙 서민들의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이것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데 금감위 쪽에서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인가된 부분은 금감위 감독 소관사항으로 해 준다면 그것 이외의 것을 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 인식 속에 들어가 주면 대부업의 양성화가 조금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李晶載 위원장이 한번 상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적인 측면하고 이용자 측면을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은 원래 자기 자금으로 자기 돈 갖고 이용자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측면에

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다가 대출을 할 때 이게 부실이 되면 빌려준 데까지 금융 동반부실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고금리에다가 나중에 못 갚을 경우에 채권추심하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金元吉 委員 또 달리 얘기하면 이게 원래는 금융업이 아니지요. 그냥 돈만 빌려 주는 거예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金元吉 委員 그런데 지금 현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피해가 많으니까 소비자 보호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사채를 양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대부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살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냥 엄격히만 단속해 버리면 돼요.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쳐 버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은 엄히 다스리면 되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는 사채 양성화라는 근본목적이 달성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보면 대부업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이율배반적이니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진입장벽을 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 산하에 이것을 감독하는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설치해 주면 여기에 진입 못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제도적으로 갖게 만들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야 일부 대부업도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양쪽 다 100점은 못 되지만 어느 정도 양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하는 업체들이 1만여 개 이상 되고 지난번에 단속을 해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3만여 개 이상이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한 업체 중에서 또 골라서 감독원의 감독 대상기관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금융기관……

○金元吉 委員 금융기관으로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요건에

맞는 업체는 금감위가 감독을 말도록 의뢰하면 되잖아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러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金元吉 委員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금감원의 애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내팽개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은행에서 데이터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니까 난리지만 이것은 속이 안 보이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 게 아니라 한번 상의를 해서, 실제로 정권이라는 것이 이런 거 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편안한 것만 하면……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알겠습니다.

○金元吉 委員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금감위 소관이 아닌 것을 다 알지만 한번 같이 논의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들여다보면 제도권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업을 한 면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한 면에서는 사채 양성화라는 의미에서 제도권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그 중간 단계의 장벽을 치는데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금감위가 만든 또는 지자체가 의뢰한 부분의 감독기능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주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해서 형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갈 수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과거에도 사금융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신용금고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부분 제도권으로 왔습니까마는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대여를 하는 것은 사실 금융업을 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악덕하게 금리를 아주 높게 한다든가 추심과정에서 문제가 유발되면 그것을 단속하면 되지 자기 돈으로 해서 못 받고 하는 것은 그 업자 자체만을 위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할 경우에는 차입을 해 준 금융기관이 잘못되어서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의 사금융 양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하에 그런 업자도 양성화해 가지고 감독권 안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金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元吉 委員 나는 금감위 자체에서보다도 정부에서 거론해서 사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전부 심각하게 된 다음에 사후 방패막이를 자꾸 하기는 어렵잖아요. 李晶載 원장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 알아들어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지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몇 차례 사금융을 제도권에 넣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지금 다 벗어나 버렸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 때 나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금융이 좀 정상화되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덜할까 했더니 더 심각해지고, 지금 같은 개인신용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심각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기관화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서도 감독 범위에 넣어 불법적인 부분이 처벌될 수 있도록 상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在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嚴虎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委員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위원입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정말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한나라당 간사 위원으로서 고마운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카드사 연체율을 동일하게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된 연체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결국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 등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대환대출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카드사의 사장이 교체되었는데, 그때 제가 연체율을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엇그제 일부 언론에 보니까 금감위에서 본 위원의 이런 제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동안 카드 규제 완화와 관련,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당하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방법 면에 있어서는 카드회사 개별적으로 차등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예컨대 각 회사별로 MOU를 체결해서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일률적으로 연체를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카드사의 재정 형편이나 부실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약간 차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아직 밟아야 할 절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다음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이를테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거기에 민간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특정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어제 공정위원회 국감 때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금감위나 금감원 산하 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는 것은 금감위나 금감원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趙在煥 간사, 李在昌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저희가 한번 죽 보겠습니다마는 대개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는 가급적 관여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래도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기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다음 저축은행에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저축은행의 사례를 하나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미래저축은행이라고 있는데 2000년 3월 9일자로 소위 수지감사건의 당사자인 윤태식 씨가 그 당시 이름인 미래상호신용금고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래상호신용금고 지분의 67%를 인수했는데 지금도 많은 제주도민들은, 지금은 미래저축은행인데 이 미래저축은행의 오너를 윤태식 씨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윤태식이라는 사람의 활동 무대가 서울인데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무려 67%나 인수했느냐 하는 점 하나, 그다음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이 일어나는데, 2000년 10월말 김찬경이라는 사람이 지분 61.3%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데 문제는 윤태식 씨의 지분을 김찬경 씨에게 판 것이 되는데 과연 김찬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지, 윤태식 씨가 수지감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미래저축은행에 가입한 소액주주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었는데 67% 지분 참여로 회장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윤태식 씨의 지분이 그대로 이름만 김찬경 씨로 바꾼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윤태식 씨가 많은 돈을 미래저축은행에 숨겨 두고 있다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금감원에서 조금 반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달라고 해서 받아 보았더니 2000년 1월 13일부터 2002년 4월 24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부분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윤태식 씨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소위 국정원의 뒷받침하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섯 번의 부분검사를 받은 후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임원 문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문책을 두 번 받으면 그 임원을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첫 번째 받은 조치가 무엇인지 봐야 알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첫 번째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니까 큰 사안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문책받은 것이지, 문책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안으로 두 번 받은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嚴虎聲 委員 출자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 두 번 연달아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13일 한 번 있었고, 2000년 5월 23일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지적받았는데 임원 문책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금감원이 미래저축은행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때 국정원이 압력 같은 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기 때문에……

○嚴虎聲 委員 이 당시에 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그 상황을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장도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연달아 지적받으면 임원을 해임하게 되어 있는데 해임되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금감원의 조치가 무언가 외압에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감위원장님도 공적자금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신한지주회사의 조흥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상환우선주를 발행해서 9000억을 조달해 지불했는데 결국은 빚을 얻어 조흥은행을 인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고, 또 상환우선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 조달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격성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신한지주회사가 공적자금위원회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인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적자금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 문제가 논의될 때는 제가 현직에 있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 결의를 했는데 그 전 과정에서 현행법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도 여러 전문가들, 심지어는 각 당에서 추천한 대표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嚴虎聲 委員 다른 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 은행이 현금도 없이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서 인수한 것인데 이런 식의 인수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신한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을 인수할 때 상환우선주를 발행해서 9000억 원을 모금했는데 만일 영업수익이 떨어져 버리면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사람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자본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자본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嚴虎聲 委員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돈 단 돈 1원도 안 내고 순전히 남의 돈으로 인수했는데 인수 적격성을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일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공적자금위원회가 열릴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실 금감위원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여러 후보 중에서 자금 동원 면에서 조건이 좋은 쪽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嚴虎聲 委員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 사후손실을 집어넣었습니다. 총 매각대금 3조 3701억 원 중 6522억 원은 사후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넣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실사팀장으로 있었던 회계사 이일권 씨의 주장이 오마이뉴스에 실렸는데 정부가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금융기관, 시중은행을 인수할 때 이러한 흑막이 내재되어 있다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대외적인 신인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전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민은행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嚴虎聲 委員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금감위에서는 아주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국민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시다.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그 중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감사원에서 국민은행에 직접적으로 조치했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은행장의 스톡옵션 절차문제와 신용카드 관리감독, 두 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상응한 조치만 했을 뿐입니다.

○嚴虎聲 委員 그때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났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주의적 경고입니다. 원래 임원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해임, 정직,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처리와 형평 등을 감안해서 주의적 경고를 주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래서 적절했다는 주장은 철회하지 않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보시기에 따라서 도덕적인 문제라는 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주주의 처리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리고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과 비교해 가지고 임원들의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감위에서는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컨대 국민은행 행장의 연봉이 11억 8000만원인데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다 3억대입니다. 또 부행장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2억 8600만원인 반면에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1억 6500만원, 2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은행이 많은 이익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럴해저드로서 은행 감독기관이 경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전반적으로 재작년,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상황을 봐서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嚴虎聲 委員 지금 이 시간에 증권거래소에서 선물 통합을 둘러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증권 관련 기관장에게 물어보니까 어제까지 전부 반대한다는 입장에 섰

던 기관장인데 전부 찬성한다는 쪽으로 돌아서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는 “통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선물이 걸음마를 해 가지고 겨우 일어섰는데 이것을 증권거래소에 털썩 안겨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선물이 독자적인 성장을 하도록 해야 되고 한국의 자본시장 현실은 현·선 분리가 맞다”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찬성한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위원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정부에서 통합으로 가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금감위원장께서는 상품을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가를 안 해 주면 못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선물시장과 증권시장,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제일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데가 바로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안 밝힙니까? 법안 제출권한을 재경부가 쥐고 있으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룡 같은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던 재경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따로 떼어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떼어 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재경원을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단독 결정기관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들을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 제도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재경부가 그런 통합방침을 밝히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봐 가지고 현·선 분리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왜 당당하게 못 밝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재경부로 다 합치면 되지요. 옛날처럼 국으로 격하시키면 되지요.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도 다르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물론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소관인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위의 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 공청회 자리에 보좌관을 보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대표로 내세운 토론자들이 전부 현·선 분리로 가야 되지 통합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동안 통합문제는 정부부처 간 협의에 의해서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嚴虎聲 委員** 협의할 때 금융감독위원회는 통합하는 데 찬성했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재경부가 안을 내놓는데 한마디 반대이론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 준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현·선 분리, 통합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증선위원회 상임위원 나와 계시지요?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예.

○**嚴虎聲 委員** 통합 논의가 있을 때 증선위 상임위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회의가 재경부에서 있었고요, 참석해서 협의했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통합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예.

○**嚴虎聲 委員**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국제적으로 다 통합추세에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嚴虎聲 委員** 국제적 통합추세라는 것은 EUREX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금융감독위원회의 종전부터의 포진선은 우리나라의 시장이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嚴虎聲 委員** 통합하면 더 다루기가 쉽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다루기 쉽든가 어렵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러면 증권 유관기관의 장들에 대한 임면승인권은 각각의 회사에 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재경부가 승인권을 쥐고 있는데 다 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다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嚴虎聲 委員 자체적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이지요.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그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거래소이사장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통합거래소이사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이사장이나 선물거래소이사장이나 코스닥위원장이나 증권예탁원사장이나 증권전산원사장이나 이런 각 유관기관의 책임자 임면에 관해서 전부 재경부에서 승인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다 선발해 가지고 끌고 나가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개별적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嚴虎聲 委員 증선위원회니까 상임위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전부 재경부 산하에 있던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앉으니까 재경부 눈치만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유관기관의 독자적인 결정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기관장 임면권을 재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유관기관 독자적으로 기관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거래소이사장만 승인하고 다른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증권거래소이사장과 선물거래소이사장은 재경부가 승인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예, 이사장만 그렇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 이사장 승인권한을 독자적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그 부분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정부에서 이사장 승인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정부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공익성 때문이지요.

○嚴虎聲 委員 그러면 주식회사로 만들면 그래도 정부가 관여해야 됩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주식회사로 해도 공익성이 있는 기관들은 정부가 승인권을 갖는 사례가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입장에서 여전히 재경부장관이 임면에 관한 승인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虎聲 委員 그것을 민간에 맡겨 놓으면 공익성이 담보가 안 됩니까?

○證券先物委員會常任委員 李佑喆 그 부분은 공익성 때문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는 것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완전히 민간한테 주식회사의 형태로 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嚴虎聲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嚴虎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감에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활동에 대한 평가’ 2권과 ‘청소년 성매매 실태보고서’ 1권, 무려 3권에 달하는 아주 좋은 자료를 발간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田稼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稼源 委員 田稼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화, 겸업화를 내세운 은행이 공격적 경영을 함에 따라서 가계대출의 증가,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은 보다 고위험의 사업전략을 통해서 부실규모를 키워 나가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요구에 밀려서 건전성, 감독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출을 허용하는 등 구조조정의 취지에 벗어난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하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형식으로 출범한 신탁이 법 개정에 따라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업무도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田稼源 委員 시중은행이나 여타 제2금융권과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또 전문적인 자산 운용능력에서 비교우위가 없는데다 부실한 자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신용협동조합은 원래는 회원들끼리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틈에 거의 영리 금융기관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적은 인원으로 천수백 개 되는 조합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스스로 회원들끼리 잘 이해해 가지고 부실이라든가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중앙회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안전기금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운용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강화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감독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田瑢源 委員** 전에 한번 퇴출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田瑢源 委員** 퇴출되는 조합 중 하나인데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운영하는 회장이나 이사장이 그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점포 내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장이라는 게 무보수 명예직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무나 밑의 직원들 한두 명 가지고 하고 이사장이 전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田瑢源 委員** 최소한 전문적인 뱅커 출신을 놓고 하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일반인 수신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田瑢源 委員**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昌** 田瑢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李性憲** 위원! 시간은 5분입니다.

○**李性憲 委員** 한나라당의 **李性憲**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전산 통합으로 파악된 주민등록번호 중복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고, 특히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중복된 사례가 몇 건이 나왔는지를 질의했는데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지금 별도 대책반을 만들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특정해서 얘기했던 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례가 몇 건이었는지 그것은 답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실무 담당하고 있는 검사총괄국장입니다.

저희가 실제 금융회사를 감사해 가지고 파악한, 금융회사는 대구은행이 하나입니다. 대구은행을 감사할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산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잠정수치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행자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게 와서 숫자가 파악되면 보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니까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대구은행은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1392건입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대구은행은 굉장히 적은 케이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협 같은 경우는 8만 건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그런 것은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 작업은 결국 정부에 의해서 정정되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65만 건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금융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던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1인당 1개씩 고유번호가 배정돼 있는데 65만 명이나 중복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문제가 전혀 없다기보다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발급이 잘못되어서 한 사람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전산화할 적에……

○李性憲 委員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1개 번호를 두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예.

○李性憲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60만 건 이상 있는 것 아니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됐냐 하면 한 사람한테 2개가 발급된 게 아니고요.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전산화시킬 때 예전에 잘못된 것을 새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통장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개인한테 2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李性憲 委員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리수’라고 하시지요?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그런 것은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이고요.

○李性憲 委員 특수한 케이스이지만 그 사람이 남자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성 전환해서 여자로 되면서 얻은 번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예.

○李性憲 委員 단순한 예지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인데, 행정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쉬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하고 그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오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또 금융당국에서 사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 오기가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그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 는 겁니다.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포착하고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숫자나 이런 것을 밝히기가 뭐한 것은 이게 잠정 숫자이고 불확실한 숫자여서 그것을 밝힐 경우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오면 바로 위원님께……

○李性憲 委員 그러면 이런 사안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 대구은행 검사할 적에 발견했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럼 금년에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금감원에서 일을 할 적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李性憲 委員 저는 금융감독원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행정부의 업무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라는 우리 국민들 개인별로 보험금이 다 납부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비단 금년에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문제로 나왔던 부분을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60만 명 이상 되는 허수가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그것은 주민등록번호가 2개 부여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옛날에 부여됐던 것 중에서 새로 고쳤는데 고치기 전 번호를 가지고 개설한 통장이 아직도 남아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李性憲 委員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개 번호를 두 사람이 쓴 경우하고 한 사람이 2개의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문제는 내가 내무부에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잘못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李性憲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냥 일과성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서 빨리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院檢査總括局長 李英彦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리고 추가로 답변받으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구두질의와 증인 신문을 마감하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李訓平 위원, 林鎭出 위원, 李性憲 위원, 朴柱宣 위원, 趙在煥 위원, 崔在昇 위원, 田瑢源 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많이 불출석한 관계로 증인 신문을 통한 국정감사의 애로를 가져 왔던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증인이 출석 안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증인 신문을 하실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일과성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야말로 태스크 포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발전시켜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晶載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불철주야로 국정감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또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묵묵히 지원해 준 尙元鍾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 직원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20人)

|     |     |     |     |
|-----|-----|-----|-----|
| 金滿堤 | 金文洙 | 金富謙 | 金元吉 |
| 金允式 | 朴炳錫 | 朴柱宣 | 朴柱千 |
| 安大崙 | 嚴虎聲 | 李性憲 | 李在昌 |
| 李海瓚 | 李訓平 | 林鎭出 | 張泰玩 |
| 田瑢源 | 鄭亨根 | 趙在煥 | 崔在昇 |

#### ○出席專門委員

|        |     |
|--------|-----|
| 수석전문위원 | 尙元鍾 |
| 전문위원   | 金昊晟 |

#### ○被監査機關參席者

금융감독위원회

|         |   |     |
|---------|---|-----|
| 위원장     | 장 | 李晶載 |
| 부위원장    | 장 | 李東傑 |
| 상임위원    | 원 | 梁天植 |
| 상임위원    | 원 | 李佑喆 |
| 공보관     | 관 | 李斗珩 |
| 기획행정실장  | 장 | 昔一鉉 |
| 감독정책1국장 | 장 | 金錫東 |
| 감독정책2국장 | 장 | 尹庸老 |

금융감독원

|        |   |     |
|--------|---|-----|
| 원장     | 장 | 李晶載 |
| 감사     | 사 | 李鍾九 |
| 부원장    | 장 | 姜權錫 |
| 부원장    | 장 | 吳甲洙 |
| 부원장    | 장 | 金重會 |
| 부원장보   | 보 | 諸廷戊 |
| 부원장보   | 보 | 李永鎬 |
| 부원장보   | 보 | 柳興洙 |
| 부원장보   | 보 | 李淳哲 |
| 부원장보   | 보 | 姜祥百 |
| 전문심의위원 | 원 | 黃仁泰 |

|               |       |
|---------------|-------|
| 기 획 조 정 국 장   | 柳 寬 宇 |
| 비 은 행 검 사 국 장 | 俞 柄 泰 |
| 검 사 총 괄 국 장   | 李 英 彦 |
| 은 행 감 독 국 장   | 鄭 成 淳 |
| 은 행 검 사 2 국 장 | 金 大 平 |

○出席證人

安 熙 正

○出席參考人

이 중 석(LG카드대표)

김 정 태(국민은행장)

○其他參席者

李 佑 喆(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